TAEHEUNG F&G

수목·조경 비료에 관한 모든 것

나무를 생각하는 유일한 기업
수목조경 전문회사
태흥 F&G

ALL IN ONE
코코피트+질석+규조토

프리미엄 1등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01 일반 경량상토와 대비하여 밀도가 높아, 추가적인 마사토 혼합이 불필요하며 수목의 안정적인 지지가 가능합니다.
02 거칠고 굵은 입자의 원료를 사용하여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습니다.
03 습윤제를 첨가하여, 적정수분 유지가 용이합니다.
04 보비력(CEC)이 높고 pH가 안정화되어 있어, 영양성분의 과부족에도 완충능력을 가집니다.

조경수 컨테이너 전용상토 50L
*침엽수용, 활엽수용 전용상토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저감숲, 도시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용 토양개량제

생생토 골드 20kg

- 토양개량효과 증진
- 천연부엽토(강원 홍천) 30% 함유로 가스피해 없는 안전한 유기물과 영양성분 공급
- 유용 토양 미생물로 병해예방
- 보습제함유로 수분 부족으로 인한 장해예방
- 뿌리활착과 원기회복으로 수목 고사율 감소

조경용 고형비료 20kg

- 비료효과 기간이 일반 복합비료의 3~4배
- 3년이상 "성목 관리용 비료"
- 조개탄 모양으로 시비가 편리
- 수목의 푸르름, 꽃빛깔을 신선하게 유지
- 황산칼리 함유로 하고현상 및 염도피해 방지

검색창에 나무비료 를 치시면 태흥F&G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구매는 조경수협회 쇼핑몰 에서 가능합니다.

태흥F&G Fertilizer & Global
INNO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
Venture for Tomorrow 벤처인증기업

본사 경기도 부천시 소향로 29 그린프라자 303호
공장 경북 의성군 금성면 공룡로 281 태흥에프엔지
상담문의 032-715-5581

조경수 2024. 봄호 Vol.182

ISSN 1225-4169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조경수

2024. 봄호 Vol.182

한국조경수협회

사단법인 한국조경수협회
Korea Landscaping Tree Association

동화기업 · 삼성물산 협력업체

대 우 임 산

조경 / 제재소 / 산림개발

소나무, 해송(농장50만평) 전국최대보유

대표 구본찬 **전무** 구본문

충남 당진시 서해로 6276, 2층 (시곡동) **사무소** 041-355-6363

휴대폰 대표 010-5409-9964 / 전무 010-5317-3115

팩스 041-356-6802 **이메일** hara7575@naver.com

PLAVIN' (주)국일화학의 New-Brand Name "플라빙"

산(山)에서 미래(未來)를

컨테이너(조경포트), 시설양묘재배용기등
플라스틱 성형 전문생산 업체

◈ **4구(분리형) (4.5ℓ, 6.4ℓ)**
. 크기 : Φ200 x H200/Φ246 x H210
. 용도 : 대형묘목/소형 조경수 생산용

◈ **시설양묘용기- 6구**
. 크기 : 1,350㎖ (Φ120*Φ80)
/ 420 x 280 x H 170
. 용도 : 소나무, 편백 2년생 등

◈ **화분140(블루베리재배용기)**
. 크기 : 1400㎖(Φ830 x H450)
. 용도 : 블루베리 재배전용용기

◈ **화분받침대(6구,9구,20구)**
. 크기 : 6구-450 x 300 x 80
9구-382 x 382 x 79
20구-470 x 377 x 80

◈ **삽목상자100 / 160**
. 크기 : 520 x 370 x 100
/ 520 x 370 x160
. 용도 : 파종상자, 묘목삽목 생산용

◈ **화분 4.5,7,12,19,25**
. 크기 : 4.5 ℓ , 7.0 ℓ , 12.0 ℓ 25.0 ℓ
. 용도 : 소,중형 조경수 생산용

◈ **조경포트 20형/35형/45형/65형/95형**
. 크기 : Φ335xH305 / Φ430xH350
Φ470xH345 / Φ520xH375 / Φ583xH420
. 용도 : 중,대형 조경수 생산용

▣ 산림용 자재 품목 및 규격 (규격에 없는 제품도 생산, 판매중)

품 목	크 기 (가로x세로x높이)	직경/셀용적 (mm/ ℓ)	품 목	크 기 (가로x내경x높이)	용적 (ℓ)	비 고
4구(분리형)	400x400x80	Φ200/4.580	화분4.5	Φ211xΦ200xH200	4.5 ℓ	색상5종
6구	420x280x170	Φ120/1.350	화분6.4	Φ246xΦ230xH200	6.4 ℓ	색상5종
특 6 구	510x340x160	Φ109/0.863	화분7	Φ257xΦ200xH200	7.0 ℓ	색상5종
12구	450x340x170	Φ102/1.050	화분12	Φ300xΦ270xH250	12.0 ℓ	검정색
15구(일체형)	425x255x162	Φ75/0.510	화분25	Φ385xΦ358xH300	25.0 ℓ	검정색
24구(일체형)	420x280x140	Φ64/0.310	화분140	Φ830xΦ750xH450	140.0 ℓ	
40구(160)	450*280*115	50*50/0.160	조경포트 20형	Φ335xΦ250xH300	19.0 ℓ	
40구(270)	443x280x140	50*50/0.270	조경포트 35형	Φ427xΦ335xH350	35.0 ℓ	
88구	440x320x65	Φ36/0.043	조경포트 45형	Φ470xΦ400xH345	46.0 ℓ	
삽목상자100	520x370x100	파종상자	조경포트 65형	Φ520xΦ450xH375	65.0 ℓ	
삽목상자160	520x370x160	삽목상자	조경포트 95형	Φ589xΦ507xH427	95.0 ℓ	
삽목포트176	535x370x60	30*30/0.036	용기받침대(P/P)	1,200x1,000x205	파렛트형 받침대	

※ 다양한 시설양묘용기, 조경수용기, 화분등 판매되고 있읍니다

(주) 국일화학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오룡동길 19 (부동리153-1)

TEL : 044) 867-9631~2 FAX : 044) 867-2231

http:www.kukilchem.co.kr / E-mail : kukilchem@hanmail.net

www.volvoce.co.kr

볼보 소형 전기 굴착기

ECR25 ELECTRIC

전기 굴착기 구입 보조금 적용 장비

• 운전중량 : 2,660kg • 버켓용량(표준) : 0.11㎥

※본 사진의 옵션사양은 이미지 컷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배기 가스는 없애고, 연료비 걱정은 줄이고, 구입 부담은 내렸습니다.

농축산, 조경, 화훼 현장

일반 토목 현장

지하 밀폐 현장

철거 현장

볼보 일렉트릭 전기소형굴착기 론칭 기념

고객 사전 상담 이벤트

"지금 바로, 부담없이 제품도 확인하시고 푸짐한 기념선물도 받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볼보의 전기 굴착기 전문 상담사와 직접 제품 정보도 확인하시고
푸짐한 선물도 증정되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

볼보 콜센터 1644-1172 로 제품 상담 신청 또는
www.volvoce.co.kr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직접 참여 가능

상담이벤트 참여시 혜택
1. 볼보 전문 카운셀러 상담 연결
2. 제품 정보 및 고객 현장 컨설팅 지원
3. 가격 및 보조금 지원 안내

고객 방문 시승 지원 (제품 상담시 신청 가능)
볼보 ECR25 행사장 방문 시,
직접 시승 작업 체험 지원 (볼보경기센터 행사장 /경기도 화성시)

이벤트 기념품
1. **사전 상담 고객 :** 볼보 쿨토시 증정
2. **시승 방문 고객 :** 볼보 쿨토시 + 볼보 휴대용 미니 백팩 + 운전실 햇빛 가리개 증정
3. **제품 구매 고객 :** 볼보 ECR25 오리지널 모형(1:32) + 볼보 고급 딜리버리 키트(3종)제공

이벤트 참여고객 증정품

볼보 쿨토시

볼보 미니 백팩

운전실 햇빛 가리개

제품 구매 고객 증정품

볼보 캐리어 백

Volvo Chronograph Solar Watch
볼보 오리지널 트윈 와치

볼보 고급 선글라스

Volvo ECR25 오리지널 모형 1:32

※본 증정품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전 국 영업망 서울지사 02-2678-5465 | 경기센터지사 031-294-8111 | 강원지사 033-762-7491 | 충청센터지사 041-556-9012 | 중부센터지사 042-932-7113 | 전남센터지사 062-945-4441~3,5
대구경북센터지사 053-741-2700 | 부산경남센터지사 055-256-4100 | 춘천지점 010-6305-1223 | 울산지점 052-710-4989 | 제주지점 064-712-24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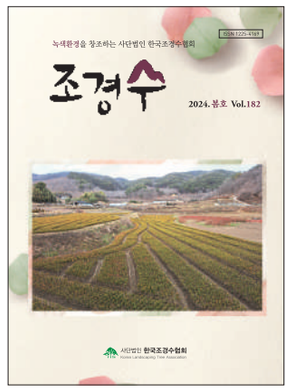
KakaoTalk 채널 ▸ http://pf.kakao.com/_xhOaGC
V-TV 볼보건설기계 유튜브 방송 ▸ Youtube 채널 **볼보 V-TV**
볼보건설기계 고객지원센터 스마트폰 앱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앱 설치 후, 이용가능

VOLVO

Contents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조경수

2024. 봄호 Vol.182



농업회사법인 ㈜다올

04	협회소식		
31	지회소식		
36	회원사탐방	전남동부지회 「(주)다올」	• 박정기
46	조경수 특집	제주왕벚나무	• 이노혁
58	조경수 유지관리	소나무와 참나무의 시들음병 이야기	• 정규종
68	새로운 조경수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7편	• 김종근
82	조경수 기고	하회마을 삼신당 느티나무	• 이용직
88	역사 속 나무 이야기	안면도 소나무, 일제에 의해 수난을 당하다	• 신현배
92	노거수 산책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 박정기
98	회원사 동정		

전남 순천시 승주읍 두모길 9

발행인 겸 편집인 윤수근
발행처 (사)한국조경수협회
등록번호 마1743
등록일 1992년1월 21일
발행일 2024년 3월 19일
(통권 제182호 봄호)
발행 및 편집주간 여운식
제작실무 박소현, 최영두, 김슬기
디자인 및 제작 한국학술정보(주)

녹색환경을 창조하는
한국조경수협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84, 203호(봉명동, 레지미(Ⅲ) 오피스텔)
TEL (042)822-5793~4 FAX (042)822-5797
E-mail klta@klta.or.kr http://www.klta.or.kr

본지에 게재된 내용과 사진은 발행자인 (사)한국조경수협회의 동의 없이는 복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NEWS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조경수 생산 및 녹화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공급 안내 공지

- (사)한국조경수협회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조경수 생산 및 녹화 자재와 컨테이너 재배용기, 상토를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사에게 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 조경자재 품목별 단가가 표시된 주문서는 협회 홈페이지 (www.klta.or.kr) 공지사항 란에 공지되어 있으니 주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주문서는 소속지회를 경유하여 보내주셔도 되고, 회원사에서 직접 협회사무국 (fax : 042-822-5797, e-mail : klta@klta.or.kr) 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주요품목 : 녹화마대, 녹화끝, 고무바, 반생, 조경용 고형복합비료, 코아네트, 황마씨네트, 씨거적, 컨테이너 재배용기, 컨테이너 전용상토 등

NEWS 2023년 자랑스러운 임업인상 수상

01. 일 시 2023년 12월 18일 (월)

02. 장 소 산림조합중앙회 서울 송파구 청사

03. 수상자 이석천 부회장

04. 내 용 임업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

NEWS 2023년 제2차 장학위원회의 개최

이강대 장학위원장

01. 일 시 2023년 12월 19일 (화) 11:00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03. 참석자 장학위원 9명

04. 내 용
- 임원선출 : 이강대 고문 장학위원장으로 추대
- 2024년 장학생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장학금 지급액 결정
- 장학기금기탁약정서 기간만료로 재약정

NEWS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시총회

01. 일 시 2023년 12월 27일 (수) 12:00

02. 장 소 대전 태화장

03. 참석자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

04. 내 용 한국조경수협회 윤수근 회장 한국임업인총연합회 감사로 당선 - 당선증 전달

NEWS 2024년 산림임업단체장 및 공공기관 신년인사회

01. 일 시 2024년 1월 4일 (목) 15:00 ~ 16:00

02. 장 소 대전KW컨벤션 센터 3층 컨벤션홀

03. 내 용 산림청장, 윤수근 한국조경수협회장 등 임업단체장

NEWS 2023년 하반기 감사

01. 일 시 2024년 1월 9일 (화) 10:00

02. 장 소 한국조경수협회 사무실

03. 감 사 노종식, 이근형

04. 내 용 업무서류 및 회계장부 일체

NEWS 2024년 예산·자재 심의회의 개최

01. 일 시 2024년 1월 18일 (목) (10:30~12:30)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03. 참석자 예산·자재심의위원 5명

04. 내 용
- 2023년 감사, 결산 보고
- 2024년 사업계획(안) 검토
- 2024년 예산(안) 검토
- 2024년 자재단가 심의

NEWS 2024년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

01.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10:20~

02. 장 소 정부대전청사 17층 대회의실

03. 참석자 윤수근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및 임업단체장, 남성현 산림청장, 처장, 각 국장 및 관계관

04. 내 용
- 규제개혁 및 소득 공모사업으로 (사)한국조경수협회의 발전에 적극 지원 결정
- 2023년 발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관측 100수종의 조경수 가격조사 추가 확대 지원

NEWS

2024년 제1차 이사회

01. 일 시 2024년 2월 1일 (목) 10:30~

02. 장 소 계룡스파텔 백제홀

03. 참석자 53명 (위임장 8장 포함)

04. 내 용

▪ 신임 임원 및 신임 상근부회장 위촉장 수여

- 지회장 : 김재용(경기), 박귀비(울산)
- 이사 : 송병수(경기), 홍명호(경기), 김현길(전북 동부), 배덕호(울산)
- 상근부회장 : 여운식

▪ 보고안건

- 제1호 전차 이사회 의사록
- 제2호 2023년 감사보고
- 제3호 2023년 주요사업 실적보고

▪ 의결안건

- 제1호 2023년 결산
- 제2호 2024년 사업계획(안)
- 제3호 2024년 예산(안)
- 제4호 기타안건

협회장 인사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장 윤수근

지회장 위촉장 수여 박귀비(울산) 김재용(경기 : 경기지회 사무국장 이학종 대리수령)

NEWS 2024년 제1차 이사회

이사 위촉장 수여 배덕호(울산) 송병수(경기) 홍명호(경기) 김현길(전북동부)

신임 상근부회장 위촉장 수여 여운식 상근부회장

NEWS 2024년 제1차 장학위원 회의

01. 일 시 2024년 2월 1일 (목) 10:00

02. 장 소 계룡스파텔

03. 참석자 장학위원 10명

04. 후 원
- 2024년 장학생 접수 현황 보고
- 2024년 장학기금 조성 현황 보고
- 2024년 장학생 선발
  - 경상국립대학교 산림환경자원학과 박보민
  - 한국농수산대학교 조경학과 오준수
  - 한국농수산대학교 산림학과 오지유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이민경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01. 일 시 2024년 2월 21일 (목)

02. 장 소 계룡스파텔 백제홀

03. 참석자 대의원 161명 중 참석 153명 (위임장 13명 포함) 내빈 40여명

04. 내 용 제1부

- **국민의례**
- **모범농장 표창** : 산림청장 전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 김상철(전남동부지회), 허춘일(충북지회)
  - 산림청장상 : 안형민(전북서부지회), 서필석(광주전남서부지회)
- **모범농장 표창** : 윤수근 협회장 전수
  - (사)한국조경수협회장상 : 유정일(경남중부지회)
- **공로패 수여**
  - 석현덕(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 차선식(수원특례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 김판중(산림청 사무관)
- **윤수근 협회장 인사**
- **남성현 산림청장 축사**
-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축사**

제2부

- **공로패 수여**
  - 봉기종(경기지회), 이학종(경기지회), 김우진(경기지회), 류주열 상근부회장
- **중앙회 사무국 직원 장기근속패 수여**
  - 장기근속패 : 박소현 국장
- **우수지회 표창**
  - 최우수상 : 전북동부지회 (지회장 송인자)
  - 우수상 : 경남중부지회 (지회장 정준호)
  - 장려상 : 전남동부지회 (지회장 송종일)
-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수 (장학금 통장 계좌이체)**
  - 장학위원 : 위원장 이강대, 위원 유명수, 김규열, 윤수근, 허춘일, 유연송, 윤병묵, 권일병, 송병수, 김경종, 김진걸, 노종식
  - (대학생)박보민, 오준수, 오지유, 이민경
- **위촉장 수여**
  - 대전·세종·충남동부지회 : 최성락 지회장
  - 장학위원장 : 이강대 고문
  - 석현덕 전문위원(조경수 가격심의)
  - 이근형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유통 연구개발단장
  - 박정이 홍보대사
  - 조강명 블로그 기자
  - 하태경 SNS마케팅 팀장
- **보고안건** : 전차 총회의사록, 2023년 감사보고, 2023년 사업실적
- **의결안건** : 2023년 결산(승인),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승인)
- **공지사항**
- **김봉균 고문 변호사 설명회** (세무, 산재)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1부 행사 - 윤수근 협회장 인사

1부 행사 -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축사

1부 행사 - 남성현 산림청장 축사

1부 행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김상철(전남동부지회), 허춘일(충북지회)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1부 행사 - 산림청장상 서필석(광주전남서부지회), 안형민(전북서부지회)

1부 행사 - 공로패 석현덕(GS&J 인스티튜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1부 행사 - (사)한국조경수협회장상 유정일(경남중부지회)

1부 행사 - 공로패 차선식(수원특례시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장) 오른쪽 두번째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1부 행사 - 내외빈 단체사진

2부 행사 - 의사진행 윤수근 협회장

1부 행사 - 총회장 전경

2부 행사 - 감사보고 이근형, 노종식 감사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2부 행사 - 공로패 봉기종(경기지회)

2부 행사 - 공로패 김우진(경기지회)

2부 행사 - 공로패 이학종(경기지회) 가운데

2부 행사 - 장기근속패 박소현 국장(중앙회) 왼쪽 두 번째, 공로패 류주열 상근부회장 오른쪽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2부 행사 - 우수지회 표창 : 장려상 전남동부지회(지회장 송종일),
우수상 경남중부지회(정준호 지회장, 최우수상 전북동부지회(지회장 송인자)

2부 행사 - 위촉장 수여 최성락 지회장 (대전·세종·충남동부지회)

2부 행사 - 장학증서 수여 (대학생)오지유, 오준수, 이민경, 박보민

2부 행사 - 위촉장 수여 이강대 장학위원장

NEWS 제58차(사)한국조경수협회 정기총회

2부 행사 - 위촉장 수여 이근형 협회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유통 연구개발단장
조강명 협회 블로그 기자, 박정이 협회 홍보대사

2부 행사 - 김봉균 고문 변호사 설명회

NEWS 2024년 전문위원 자문회의

01. 일 시 2024년 2월 28일 (수) 11:00

02. 장 소 (사)한국조경수협회 회의실

03. 참석자 회장 윤수근, 고문변호사 김봉균,
조경수 컨테이너재배 유통 개발단장 이근형,
홍보대사 박정이, 블로그 기자 조강명,
마케팅 팀장 하태경, 상근부회장 여운식

04. 내 용 분야별 전문위원 자문 및 협회 협조 요청

NEWS 무궁화 단독법 추진운동 발대식

01. 일 시 2024년 3월 11일 (월)

02. 장 소 서울시 여성프라자

03. 참석자 정사라 한국무궁화어머니회중앙회장, 윤수근회장,
박정이 홍보대사, 김중원 경남중부지회 사무차장,
조강명 블로그기자, 김우진 세계무궁화연맹 총재,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및 한국무궁화어머니회 회원 등

04. 내 용 무궁화 국화 법제화 추진

NEWS 경남중부지회 정기총회

01. 일 시 2023년 12월 14일 (목)

02. 참석자 경남중부지회원

03. 내 용
- 2023년 경남중부지회 감사결과 발표와 의견 교환
- 모범회원 표창 : 사마산조경 이춘성회원 (금배찌 증정)
- 회갑회원 선물 증정 : 은수저 1세트
- 2024년 협회 추진 중요 계획 설명
- 2024년 지회 발전계획 논의

경남중부지회 김중원 사무차장, 정준호 지회장, 서마산조경 이춘성 회원

총회 전경

NEWS 2023년 강원지회 정기총회

01. 일 시 2023년 12월 21일 (목)

02. 장 소 치악산 한우타운

03. 참석자 강원지회 회원

04. 내 용 강원지회 2023년도 정기총회

NEWS 광주·전남서부지회 제34회 정기총회

01. 일 시 2024년 1월 23일 (화) 10:00~

02. 장 소 JS웨딩컨벤션 1층

03. 참석자 윤수근 협회장, 이병관 지회장, 정강욱 광주시녹지정책과장, 지회회원 등

04. 내 용 상패 및 공로패 수여
- 광주시장상 : 김경수 부회장
- (사)한국조경수협회장 표창 : 김종관, 손성호 회원
- (사)한국조경수협회장 공로패 : 김봉식 회원
- (사)한국조경수협회장 감사패 : 김경수 부회장, 이근형 감사

NEWS 경기지회 이사회

01. 일 시 2024년 2월 20일 (화) 11:30 ~ 14:00

02. 장 소 마벨리에 평촌점

03. 참석자 경기지회 회원

04. 내 용 2023년 제8회 조경수산업
활성화 발전포럼 결산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경기지회
운영규정 및 부칙 개정

NEWS 2024년 경기도 농업인단체 초청 간담회

01. 일 시 2024년 3월 7일 (목)

02. 장 소 경기도의회 대회의실

03. 참석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김재용 경기지회장,
봉기종 부회장, 송병수 이사, 조동표 경기지회원,
이학종 경기지회 사무국장 및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 관계자

04. 내 용
- 농촌이 살아야 경기도가 산다.
- 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 경지정리 토지임대시 다년생 식물재배 허용방안
  - 그린벨트 임야 조경수재배 허가요청건
  - 조림현장에 관할 시군에서 선정하는 수종보다 산주가 산림경영에 필요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

심쿵심쿵 발자국 소리에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를 보다

전남동부지회 「(주)다올」

글 · 사진 한국조경수협회 이사 / 경남중부지회 **박 정 기**

'순천시 승주읍' 하면, 조계산(曹溪山)과 선암사(仙巖寺)를 떠올린다. 201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암사는 천연기념물 제488호 선암매(仙岩梅)가 있다. 선암동천(仙岩洞天) 승주읍은 철쭉이 유명하다. 순천시 서면과 더불어 철쭉 생산지로 재배면적이 넓다. 기후와 토질이 좋은데다가 연혁이 오래되었으니 경험칙에 노하우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누구나 연착륙하여 부농이 되지는 아닐 터, 물반 고기반 일지라도 만선을 누리는 기술과 전략이 있어야함은 불을 봄과 같다.

㈜다올 은 한국조경수협회 모범농장이며 농업회사법인이다. 2007년 설립하였고 조경수 재배를 주력 업종으로 표고버섯 생산·유통까지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복합영농 중견기업이다.

김상철(金尙撤) 대표는 우리 협회 부회장이다. 2005년 협회에 가입했고, 전남동부지회장과 (사)전라남도 선도임업인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조경인이자 임업후계자이다. 1991년 해병대 부사관 전역 후 조경수를 재배해온 김 대표는 베테랑 조경인이지만 조경학이나 임학을 전공하지 않았다. 그래서 괄목할 성과를 이룬 입지전적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나무로 성공한 사람, 김상철' 그 비결을 물으니 "나무를 키워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했다. 나로부터 성실, 남으로부터 믿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흙은 거짓말 않는다는 옹고집 외길을 걸어 왔을 뿐이다."라고 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賞에 빛나는 조경人, 임업人, 봉사人

김 대표는 지역에서 크고 작은 감투를 쓰고 있는데 명예욕이 아닌 봉사욕,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다. 승주읍 들머리 헌수목 (獻樹木) 장송과 표석이 웅변한다.

선입선출(先入先出), 선순환 농장 심고, 비우고, 또 심고. 회전율 높은 ㈜다올 재배포지. 얼마 전 출하한 빈 포지가 있고, 최근 입식한 포지가 있으며, 출하를 기다리는 포지가 이어져 있다.

철쭉 + 알파(α) 주력 수종인 철쭉과 회양목, 눈주목 재배면적을 70% 내외로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대관목, 장령목, 특수목을 입식하여 종 다양성과 시장 다각화에 대응한다.

선호도·거래량 높은 수종일수록 품질로 승부 철쭉은 충분한 간격을 두어 가지 신장이 좋고 키도 고르다. 중·하품 선별이 필요 없을 만큼 전량 상품이다. 회양목, 눈주목, 꽃댕강나무, 남천, 단풍철쭉, 사철나무, 홍가시나무, 화살나무, 덜꿩나무 또한 마찬가지이며 서양측백류, 무궁화, 은목서, 배롱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수형도 반듯하다.

삽목에서 정식(定植), 포지관리까지 꼼꼼하게 모수 선발, 양묘, 출하 과정을 직접 챙기고 제초, 방제, 시비 시점을 놓치지 않으며 연작(連作) 피해가 없게 순환재배 원칙을 지킨다.

철쭉농사부터 한 우물 파기 33년 ‘두 지게를 지면 하나도 제대로 운반할 수 없다’를 믿는 김상철 대표는 경기에 휘둘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관목을 심어 자수성가를 이루었다. 처음부터 교목재배를 하였거나 조경공사업에 뛰어들었다면 다면 지금과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라 말한다. 단기소출에 유리한 철쭉, 회양목, 눈주목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기반을 다진 다음에 중간키나무와 특수목을 재배하였는데 그 사이에 인건비가 오르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 지금,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조경수 재배와 유통에다 지역사회 역할까지 1인 3역 김 대표의 논밭을 누비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 보였다. 심쿵심쿵 발길마다 소출로 이어지니 손에 잡히는 경제다. 농장 규모 22ha, 철쭉 메카, 부지런함은 기본, 매사 분명하고 후덕하여 ‘아낌없이 주는 큰 나무’로 자자하다.

특수목을 다루는 노하우는 불황을 견디는 밑천 승주읍 일원은 노거수 반열에 오른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감나무, 배롱나무, 모과나무, 뽕나무, 산수유, 매실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가 많다. 지역 사정에 밝고 굴삭기 잘 다루는 김 대표는 각종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노거수를 굴취하여 전시하고 기증하기도 한다. 특정 수종이나 초대형 규격을 큰돈을 주고 입식하지 않는, 생명존중·나무사랑·지역사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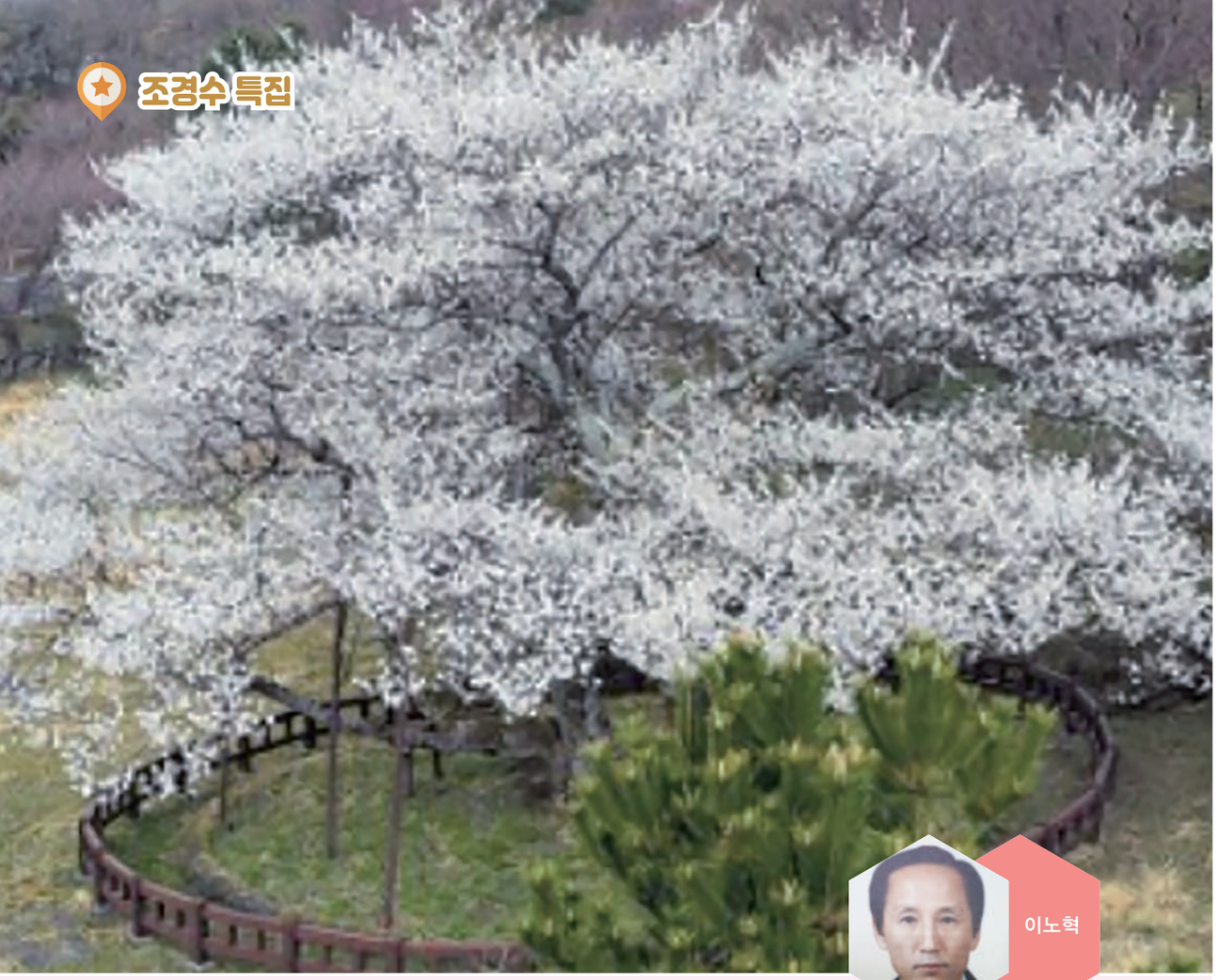
다양한 수종과 수형이 눈길을 끄는 특수목 전시포지

*위로부터 소나무, 팽나 무, 산수유

조경수와 건축미를 접목한 한옥펜션 조경수 농장이 정원이 되고, 카페가 되는 시대 흐름을 읽고 한 발 더 나아간 김 대표는 뿌리 깊은 지역의 문화를 살려 전통한옥을 지어 山·水·木이 어우러진 선경(仙境)을 연출하였다.

모범농장 ㈜다올 은 더 넓은 포지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만, 김상철 대표 아내와 두 딸도 함께 일하고 있다. 조경수 재배 특성상 가업인 경우가 많지만 부모 마음은 늘 안쓰럽다. 일을 좀 줄였으면 하는 가족들의 바람 또한 인지상정이다. 그래도 필자 입장에서는 정답게 일하는 모습이 부럽게 보였다. 아내는 김 대표를 "책임감이 강하고, 목표를 세웠으면 꼭 이루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사업도 봉사도 응원하지만 건강을 챙겨 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전한다. 어느 한 곳 아쉬운 데 없는 농장, 모두 多, all ㈜다올에 상춘곡(賞春曲)이 우렁차다.

농업회사법인㈜다올 :
(57907) 전남 순천시 승주읍 두모길 9
전화 : 061) 754-4200, 4201
휴대전화 : 010-3622-7772(김상철)



조경수 특집

이노혁

조경 특급기술자

여덟 번째 이야기

제주왕벚나무

* **천연기념물 제159호**. 제주시 봉개동.
  수령: 약200년, 높이 15m. 밑동둘레3.4m
  서귀포시 서홍리 성당에 와 있던 프랑스 신부 타케 씨가 1908년4월에 발견

* **국내최고령수목: 수령 274년 높15.5m 밑둥둘레 4.49m**
* 일본 소메이요시노(왕벚나무) 의 최고수령은 150년 정도라 한다.

제주왕벚나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벚나무의 종친이라 할 수 있는 벚나무속 에는 변종 품종을 포함하여 약 50종에 이르고 이들 중 벚나무 자 가 들어가는 나무도 품종 변종을 합하여 17종 내외가 되는 것 같다.이들 중 관상가치가 높은 것으로는 제주왕벚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꽃벚나무 올벚나무 처진개벚나무(수양 또는 능수벚나무) 들이다. 이중 쉽게 구별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제주왕벚나무 올벚나무 처진올벚나무 산벚나무정도 이다.

보통 산야에 야생하는 벚나무류 중에는 표준명이 벚나무 산벚나무가 있지만 이들을 쉽게 구별하지 못하므로 보통 벚나무나 산벚나무 로 부르고 있다. 학술적인 연구나 특수목적이 아니면 관상측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하겠다. 제주왕벚나무는 잎이 피기전인 이른 봄에 꽃이 화려하고 탐스럽게 피어 관상가치 높고 최근까지 왕벚나무 원산지를 놓고 논쟁이 계속 되다가 끝이 났음으로 이번 호에서는 제주왕벚나무를 중심으로 해설을 하고자 한다.

제주왕벚나무의 학명은 Prunus nudiflora(Koehne)Koidz.이다. 학명이란 세계적 공통으로 쓰이는 식물 이름이다. 제주왕벚나무는 제주도 한라산과 전남 대둔산 등에 소 수량만이 자생하며 우리나라 특산수종 이다. 왕벚나무 원산지가 한국이냐 일본이냐 로 100여 연간 논쟁을 이어 오다가 현재 왕벚나무로 불리는 것은 소메이요시노 로 일본에서 인위적으로 교배해서 만들어낸 재배종이고, 한라산에 있는 제주왕벚나무는 자연잡종인 것이므로 종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밝혀 내고 1918년 9월에 세계적인 학술지 '게놈바이올로지'에 논문을 실었다. 이로서 원산지 논쟁은 끝이 난 것이다. 기존에 왕벚나무란 표준명이 있어 제주산 왕벚나무는 "제주왕벚나무"라 정한 것이고 2020년 발행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제주왕벚나무는 자생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 수종 중에서 조경용으로 많이 식재하는 것으로는 왕벚나무(소메이

요시노)인데 재배종이고, 벚나무 산벚나무 올벚나무 꽃벚나무 처진개벚나무 귀룽나무 등은 일부만이 사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꽃벚나무와 올벚나무는 왕벚나무와 같이 꽃이 잎보다 먼저 피기 때문에 왕벚나무인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원예종 겹벚나무는 공원이나 부지가 넓은 정원에 많이 사용 하고 구분이 용이 하며 자생종이 아닌 일본의 원예 재배종이다.

1960년대 이후 왕벚나무 접목묘를 대량 생산하여 전국의 도로 공원 유원지 학교 녹지공간에 식재하여 최근에는 어디를 가든 아름다운 벚꽃을 감상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나무들은 제주왕벚나무가 아니고 일본 교배 재배종인 소메이요시노 라는 일본 벚나무라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소메이요시노 (일본 왕벚)나 제주왕벚나무의 외견상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소메이 요시노가 일본 국화가 아니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1. 제주왕벚나무 원산지확인과 표준명 변경

왕벚나무에 대해 100여년동안 논쟁을 하여 오든 것이 2018년에 결론이 났다.

국립수목원은 “명지대·가천대 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봉개동·신례리 한라산 자생지에 있는 제주왕벚나무 대표 샘플과 일본에서 최초로 왕벚나무로 기록된 도쿄대 부속식물원(고이시카와 식물원)에서 소메이요시노(왕벚나무 일본명) 샘플을 확보해 최신 기술인 분자 마커(염기서열 분석)까지 실시해 분석한 결과 제주왕벚나무는 모계가 올벚나무, 부계가 산벚나무 또는 벚나무라는 유전체 감식 결과가 나왔고, 일본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는 모계가 올벚나무로 같고 ,부계가 일본 토종인 오시마벚나무 (왜벚나무)와 인위적으로 교배한 재배종이므로 서로 다른 종(種)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은 2018년 ‘게놈 바이올로지’에 올려졌다. 그러므로 소메이요시노의 학명은 그대로 해야하나 우리말로는 일본 왕벚나무라 하든가 소메이요시노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된다.

* 제주도 자생종인 제주왕벚나무(濟州왕벚나무) 학명 Prunus nudiflora. (프루누스 누디플로라, 영어: King cherry) 이다.

* 일본교배종인 왕벚나무(染井吉野) 소메이요시노, 학명: Prunus yedoensis (프루누스예도엔시스) 이다. 왕벚나무(소메이 요시노)는 재배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 외형상 구분이 확실치 않아 국립수목원과 수목분류 학자들이 차이점을 연구중에 있다하며, 제주도 한라생태숲에서 제주왕벚나무를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묘목을 서울식물원에 공급 식재하였다 하여 필자가 2024년2월12일 현지를 확인한바 왕벚나무는 겨울눈(冬芽) 인편에 털이 많고 제주왕벚나무는 없거나 약간 있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2. 이름의 유래와 전설

유래: 옛날에는 먹을 것이 부족하여 벚나무열매를 6~7월에 검붉게 익으면 많이 따 먹었다. 이 열매를 버찌라 하였고, 1937년 “조선식물향명집”을 발간하기 위하여 조선 박물 연구회에서 각 지방에서 부르는 식물 이름을 조사 수집하여 표준식물명을 정할 때 버찌의 찌 자를 빼고 벚나무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왕벚나무는 벚꽃류중에 화관이 크고 꽃이 잎보다 먼저피고 소화경이 많아 가장 화려하게 피어 왕 자를 붙인 것으로 추정 된다. 동식물들은 잎이나 꽃이나 몸집이 큰 것에는 보통 왕자가 붙어있다.

전설: 옛날에 한라산 기슭에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한 만수라는 총각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들의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병환이 악화 되었는데 만수의 부모에 대한 효성이 사찰 스님께 전해지면서 스님이 만수네 집을 찾아와 이르기를 한라산에 올라가면 백록담 주위에서 풀을 뜯는 사슴이 있는데 이 사슴뿔을 잘라 달여 드리도록 하라는 말씀을 만수가 듣고 다음날 새벽에 출발하여 백록담 주변에서 뿔을 가진 사슴을 발견하였고 만수는 몸을 숨기며 다가가 사슴을 붙잡았는데 힘이 세어 쉽지 않았다. 다행이 뿔이 나무에 부디쳐 부러지자 이것을 갖고 정신없이 내려오던 중 귀여운 목소리로 도련님을 부르는 것에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가 그대로 들은 체 만체하고 집으로 달려 와서 어머니에게 달여 드리니 감쪽같이 나으셔서 만수의 걱정은 덜었다. 그러나 백록담에서 내려 올 때 여인의 애처로운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 한라산에 다시 오르니까 사슴무리 옆에 선녀 같은 여인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 대신 사슴을 지키는 여인은 만수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만수의 효심을 아버지께 드리면 노여

움을 푸실 거라 하였다. 만수는 그 여인의 고마운 마음씨에 반해 아내가 되어주길 간청하였고 그 여인은 승낙 하였다. 이 둘은 집에서 정안수 한 그릇을 떠놓고 혼례를 치르고 즐겁게 살았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보니 아내는 없어지고 자기는 나무 밑에 있었다. 만수는 집에 와서 말도 못 하고 수심에 가득차고 먹지도 잘 못하였다. 다음해 봄에 나무하러 갔다가 한라산에 들렸더니 그 여인이 있던 집에 꽃이 활짝 핀 것이 있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옆에 있는 나무가 바로 왕벚꽃 이었다는 것이다.

3. 주요 벚나무들의 다른 이름과 분포 및 특징

가. 제주왕벚나무

* 분포: 제주도한라산 .전라남도 대둔산

* 다른 이름: 민벗나무 사꾸라나무 사쿠라 제주벗나무 큰꽃벗나무

* 특징: 꽃은 잎보다 먼저 피고, 꽃은 산방화서에 3~6개, 보통 3~5개 인 것이 많으며 열매가 다른 벚나무들 보다 소량 달린다. 잎자루 꽃대 꽃받침통 암술대에 털이 있고, 겨울눈에는 약간 있거나 없는데 일본산 왕벚나무는 많이 있다.

나. 꽃벚나무

* 분포: 중부지방

* 다른 이름: 꽃벚나무

* 특징: 꽃은 잎보다 먼저피고 꽃은 산형화서에 1~3개가 달리고 .엽병과 꽃대에 털이 있고 암술대에는 없다. 꽃잎 끝이 많이 패임. 잎 끝이 꼬리처럼 긴 점첨두 이다. 작은 꽃대 위부분에 융모(絨毛)가밀생한다.(융모;좁쌀같은 돌기)

다. 올벚나무

* 분포: 남부지방.

* 다른이름 : 빨강올벗나무 붉은올벗나무 화엄벗나무

* 특징: 꽃은 잎보다 먼저피고 산형화서에 2~5개 (보통2~3)달리며 암술대및꽃받침통 꽃자루에 털이 있다. 꽃받침통 모양이 항아리형 이다. 보통 벚나무는 원통형 이다.

라. 처진개벚나무

* 분포: 장산곶 ·위봉산 ·지리산 ·보길도 ·제주

* 다른이름: 수양벗나무 수양벗 능수벗나무 처진올벗나무

* 특징: 꽃이 잎보다 먼저 피고 산형화서에 꽃이1~4개가 달린다. 암술대 꽃받침통, 꽃자루에 털이 있다. 가지가 수양버들처럼 밑으로 늘어진 것 말고는 올벚나무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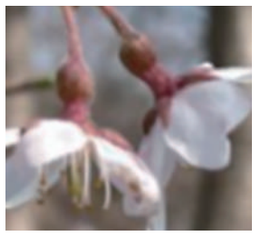
꽃이 잎보다 먼저 피는 벚나무류 비교 사진

왕벚나무 (꽃개수)

꽃벚나무 (꽃개수3)

올벚나무(꽃받침통항아리형)

꽃벚나무잎 긴꼬리


처진개벚나무(수양벚나무)

제주왕벚나무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

마. 벚나무

* 분포: 전국

* 다른이름: 산벚나무 참벚나무

* 특징: 꽃이 잎보다 먼저 피거나 같이 핀다. 산방화서에 꽃2~4 개. 엽병 화경 꽃통 암술대에 털이 없다. 엽병에 2~3개의 샘물질(꿀샘)이 있다.

바. 산벚나무

* 분포: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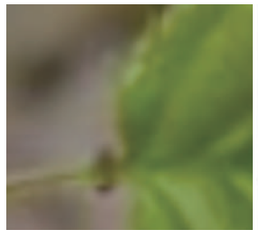
* 다른이름: 왕산벗나무 홍산벗나무 사젠트벗나무

* 특징: 꽃과 잎이 동시에 핀다. 새싹잎 끝부분이 끈적임이(점착성액) 있는 것이 다른 벚나무와다르다.엽병이 적색이고 2개의 적색 샘물질(꿀샘)이 있다. 산형화서로 꽃대축이짧아서 포에 쌓여 잘 안보이는 것이 벚나무와 다른 점이다.

꽃이 잎과 거의 동시에 피는 벚나무 비교사진

벚나무화서

산벚나무화서


벚나무샘물질

산벚나무 샘물질

사. 귀룽나무

* 분포: 중부지방,특히 수도권주위 *.다른이름: 귀룡나무 귀종목 구름나무 구룡목(한방)

* 특징: 중부지방에서 다른 활엽수들이 잎 트기전 푸른활엽수의교목은 귀룽나무이다. 4월하순에 새가지 끝에 꽃이 아까시아 꽃처럼 늘어져 총상화서로 핀다. 작은가지를 자르면 냄새가 난다. 잎이 다른 활엽수보다 일찍 피어 꽃 역할 도 한다.

아. 겹벚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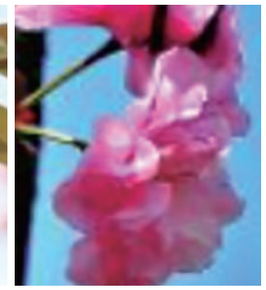
* 분포: 국내자생종이 아님(일본원예품종임)

* 특징: 꽃은 보통벚나무들의 꽃이 진다음 피고 겹동백처럼 겹으로 피고 꽃크기가 왕벚꽃의 1.5배정도크며 색상은 분홍 연분홍 백색 등이 있다. 재배품종이다.

꽃이 잎이핀 후 4~5월에 피는 벚꽃나무 류

귀룽나무

겹벚나무


겹벚나무

주요 벚나무 특징 비교표

수종별 / 부위별	제주 왕벚나무	꽃벚나무	올벚나무	처진 올벚나무 (수양벚나무)	벚나무	산벚나무
소지에 털	약간있음	없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개화시 잎 유무	꽃 먼저핌	꽃 먼저핌	꽃 먼저핌	꽃 먼저핌	거의 같이핌	같이핌
꽃색	연홍, 백색	연홍색	연홍색	연홍 (올벚보다 약간붉다)	연홍 백색	연홍 백색
화서(꽃차례)	짧은산방형, 산형	산형	산형	산형	산방-많음 산형-적음	산형
소화경개수	5~6 (보통3~4)	1~3	2~5 (보통2~3)	2~3	2~5 (보통2~3)	2~5 (보통2~3)
암술대털	있음	없음	긴털있음	없음	없음	없음
꽃받침통털	있고, 없고	있고, 없고	있음	있음	적색임	없음
꽃자루털 (소화경)	있음	소화경에 융모(돌기) 밀생	소화경에 있음	잎표면에 처음 밀생 했다가없어짐	없음	없음
잎자루털 (엽병)	있음	있음	있음	표면에 잔털	없음	적색임, 털있음
잎자루밀선 (蜜腺)	2개 있음	없음	없음	2~4개 있음	연녹색 2~3개 있음	적색 2개 있음
기타특징		잎끝이 꼬리처럼 긴점첨두이다	꽃받침통은 항아리형	꽃받침통은 항아리형, 가지는 늘어짐		새잎음 끈적임 (점着性)
겨울눈 털 유무	약간 있음	없음	많음	약간 있음	없음	없음

* 꽃의구조에 대한 용어 풀이

총상화서(總狀花序): 길게 자란 화축 양옆으로 작은 꽃대가 계속 나는 형태
산방화서(傘房花序): 화축에서 작은 꽃자루가 달리는 것.
산형화서(傘形花序): 화축 끝에서 작은 꽃자루들이 모여 달리는 것.
화축(花軸) 식물의 꽃자루가 달리는 원줄기(꽃대)
화경(花莖): 꽃줄기
화경(花梗): 꽃자루
화탁(花托)=꽃턱: 꽃받기 또는 꽃받침. 꽃자루 맨 끝에 꽃의 모든 기관이 달려있는 불룩한 통.
꽃받침통: 꽃받침이 서로 합쳐져서 만들어진 통 모양
밀선(蜜腺): 꿀샘, 샘물질, 꿀 분비물이 나오는 샘
첨두(尖頭): 잎 끝이 긴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해 지는 것.
점첨두(漸尖頭): 잎 끝이 점점 뾰족하여 꼬리 비슷하게 좁아지는 모양

4. 용도

벚나무류는 이른 봄에 꽃이 화사하게 피는데 그 중에서도 제주왕벚나무는 잎이 피기 전에 꽃송이가 크고 더욱 화사하게 피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케 하고 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중 벚나무는 소나무 다음으로 2번 째 이고, 꽃나무 중에서도 장미 다음으로 2번째 이다. 식재 면적으로 볼 때는 벚나무가 제일 많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지금까지 심겨진 왕벚나무가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제주왕벚나무가 아니고 소메이요시노(일본산의 재배종)임이 2018년에 밝혀졌다.

제주왕벚나무는 제주도에만 일부 가로수로 심겨진 것 같다. (서울식물원과 천리포수목원에도 소량 공급 식재됨)

* 살아있는 나무: 조경수(가로수 공원수 건물의 정원수 유원지 경관수 녹지 공간수등)및 분재수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본다.

* 열매: 6~7월에 검게 익는데 옛날에는 먹을 것이 적어 식용으로 많이 먹거나 일부 버찌를 술을 만들어 먹었다. 필자도 1950연대 전후에는 야생 버찌를 많이 따 먹었었다. 그러나 제주왕벚나무는 제주도에만 있어 먹어본 사람이 소수 일 것이다.

5. 왕벚나무 번식법

왕벚나무의 번식법은 유성번식과 무성번식이 있다. 유성번식은 종자로 번식시키는 실생묘법 즉 종자를 파종하여 묘목을 얻는 방법이고, 무성 번식은 왕벚나무에서 접수를 채취하여 접목이 가능한 대목에 접목하는 접목법과, 왕벚나무의 어린가지로 삽목 즉 꺾꽂이(휴면지 및 녹지) 하여 묘목을 얻는 방법, 또는 조직배양법등이 있는데 현재 로서는 접목법 이외에는 모두 효율성이 적어 보통 벚나무종자를 파종하여 대목으로 사용 하고 목적하는 수종의 접수로 접목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왕벚나무의 종자는 순량율 발아율 등이 조사된 것이 2023년 말 현재 없다.

6. 왕벚나무 원산지의 논쟁과 도입

100여 년 동안 논쟁하든 왕벚나무 원산지문제는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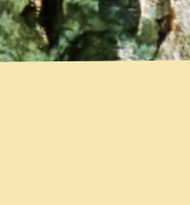
이 문제는 제주왕벚나무와 왕벚나무(소메이요시노)가 외관상으로 구분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신기술인 분자 마커(염기서열 분석)로 분석하여 차이점을 발견한 것이다.

왕벚나무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은 1907년에 국가차원에서 3년생 1,500주를 들여와 500주는 남산 왜성대공원(현재예장동 일대)에 심고 나머지1,000주는 여러 지역에 나누어 식재 했다 한다. 한일합방전인 1908년과 1909년에는 오사카에서 도입한 2년생 300주를 창경궁에 식재 했다한다. 남산에 심은 왕벚나무가 자라서 꽃이 만개한 1914년에는 이 벚꽃을 구경 온 사람이 무려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한성부 인구가 주변 군을 합쳐도 30만이 안 되었을 것이라 하니 그 인기도를 짐작케 한다.

참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벚꽃이 일본 국화(國花)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법으로 정한 국화가 없으며, 옛날 황실에서 좋아하고 많이 심도록 지시 한 것뿐이다. 일본의 나라꽃은 국화과의 국화 이다.

조경수 유지관리

소나무와 참나무의 시들음병 이야기



정규종
나무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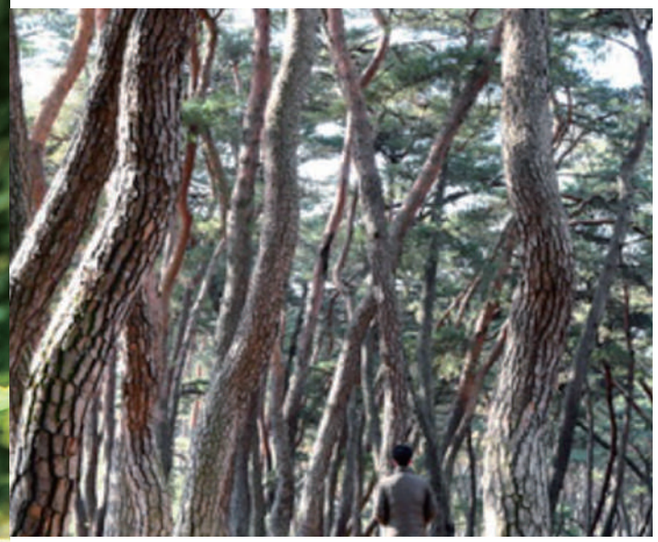
(주)장안 환경생태연구소 소장
신구대학교 겸임교수

1. 시들음병의 발생

수목의 피해가 가장 빨리 나타나는 병은 무엇일까? 물관이 폐색되어 물과 양분의 공급이 차단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수목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 시들음 증상을 보이게 되면서 1개월 늦어도 수개월 안에 고사하게 되는 것이다.

수분부족으로 인해 잎이 축쳐지는 현상이 바로 시들음 증상이다. 농작물에서 시들음병은 물관을 막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풋마름병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수목에서는 다르다. 물관이 클 뿐 아니라 많기에 수목의 물관은 오염되거나 침입이 발생할 경우 물관폐색이 진행되어 물관을 막어버린다. 그러나 옆에 또 다른 물관이 있기에 몇 개가 막힌다 해도 수분공급에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런 이유인지는 몰라도 나무의 시들음 증상을 발생시키는 병원균은 세균보다 덩치가 큰 재선충이며 또한 곰팡이이다.

시들음 증상은 결국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수관이 점점 황화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고사하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이러한 병이 우리나라 숲에 가장 많은 나무인 소나무와 참나무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끔찍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소나무

참나무

우리는 산행을 할 때 1m 정도 잘려진 나무줄기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비닐로 덮어둔 나무무덤을 종종 보게 된다. 푸른 숲 속살이 들어 날 정도로 고사목이 발생하여 제거한 것이다. 이 나무무덤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명맥을 이루고 있는 참나무가문과 소나무가문의 무덤이다. 참나무 주변의 나무무덤은 참나무시들음병이 원인이고, 소나무 주변의 무덤은 소나무재선충이 그 원인이다.

최근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소나무시들음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림청에서는 2020년까지 재선충병을 막겠다고 하였으나 쉽지는 않은 듯 싶다. 산림뿐아니라 소나무를 재배하는 우리 농가에도 피해가 있을까 우려된다. 특히 도시지역이 아닌 산림과 인접하거나 산림내에 있는 농가는 더욱 위험하다. 주변숲에 소나무가 많으면 더욱 위험해 진다. 왜냐하면 솔수염하늘소의 먹이자원이 숲에서부터 농가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이다.

도시지역의 소나무가 시들음병이 적은 이유는 솔수염하늘소의 이동이 어렵고 먹이자원이 한정되어 있기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시들음병(재선충)

참나무시들음병

2. 소나무와 솔수염하늘소

소나무와 솔수염하늘소는 오랜세월 앙숙과도 같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에 알을 낳고 그 알에서 깬 애벌레는 소나무 목질부를 파고 들어가 생활하며 번데기가 되고 우화하여 세상으로 나온다. 그러나 소나무는 자기방어를 위해 송진을 분비하여 알과 애벌레가 살 수 없도록 한다. 우리나라에 소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나마 소나무의 방어력이 우세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니 어쩌겠는가. 솔수염하늘소는 허약한 소나무, 나이든 소나무에 침입하여 송진을 덜 만들고 송진의 위력이 약한 소나무만 골라 먹이로 삼고 보금자리로 택했을 것이다. 충분히 허락되지 않은 먹이자원과 서식장소는 솔수염하늘소에게는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했고 그 조력자가 바로 재선충이었다.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재선충과 결합하여 서로의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늘소는 송진이 줄어든 소나무를 가해할 수 있어 좋고, 재선충은 지상부의 먹이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좋다.

소나무시들음병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소나무시들음병 병원체(재선충)

그런데 이런 재선충은 언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가. 소나무재선충병은 북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과 캐나다의 소나무들 미송이라고 불리는 소나무들은 재선충과 오랜 시간 싸워오면서 생존한 소나무들이 후대를 남기며 진화를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선충에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동일한 작용기작의 농약을 지속적으로 뿌리면 해충의 면역반응으로 더 이상 농약이 말을 듣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살아남은 해충은 동일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줌으로써 약제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북미에서는 제대로 힘써보지도 못한 재선충이 아시아로 그 무대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생겼다. 제국주의 시대 미국이 일본을 개항시킴으로써 많은 물자가 일본에 들어오게 되었고, 재선충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이로써 재선충은 아시아에 상륙하게 되었으며 하늘소와 결합하면서 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였고 이런 사실이 1905년 학계에 보고되었다.

그로부터 120년이 흐른 지금에는 어떤가? 1988년 일본과의 교역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된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와 만나 소나무라는 공동의 적을 2:1로 싸우는 형국이 되었다. 1982년에는 중국의 난징으로 유입되어 광대한 중국영토의 소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다. 그 뿐아니라 유럽의 스페인, 포르투칼 등에 유입되어 이제는 전 세계의 소나무지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넘어온 재선충에 의해 우리나라 소나무인 적송과 해송 그리고 잣나무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 그에 반해 산림녹화사업때 많이 식재하였던 리기다소나무, 방크스소나무, 테다소나무, 리기테다소나무 등 외래소나무들은 그 피해가 적어 소나무시들음병이 발생한 지역은 외래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피해목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지도 문제이다.

3. 참나무와 광릉긴나무좀

참나무류에는 졸참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신갈나무, 갈참나무는 시들음병에 취약하다. 산에 가면 볼 수 있는 노란색이나 갈색의 끈끈이트랩을 감아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광릉긴나무좀을 잡기 위해, 참나무류 중에서 허약하거나 지름이 30cm이상 되는 신갈나무나 갈참나무에 집중되어 있다.

참나무와 광릉긴나무좀도 소나무와 솔수염하늘소의 관계처럼 오랜시간 전쟁을 치루고 있었다. 건강한 참나무는 페놀물질을 많이 분비하여 해충과 병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으며 강력한 형성층의 존재는 광릉긴나무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광릉긴나무좀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었는데, 소나무시들음병과 마찬가지로 조력자인 곰팡이균을 이용하는 것이다. 광릉긴나무좀이 줄기에 구멍을 뚫고 곰팡이균류인 *Raffaelea quercus*를 내부에 주입시키면 곰팡이균은 목질부의 물관으로 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참나무는 물관이 막혀 시들음 증상을 보이게 된다.

허약해진 참나무는 결국 수개월 안에 고사하게 되며 광릉긴나무좀은 더할 나위 없는 서식장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주입된 곰팡이균이 증식하게 되면 광릉긴나무좀의 애벌레가 곰팡이균을 먹고 자란다. 곰팡이라는 곡식을 경작하듯이 말이다. 그래서 이를 cultivation이라고 한다.

또한 광릉긴나무좀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나무를 공격할 때에는 수목 줄기의 2m 아래 부분을 가해하고, 집합페르몬을 분비하여 동료들을 불러 모으며 교미 시에는 성페르몬을 이용하여 상대를 찾아오게 한다.

곰팡이를 이용한 독특한 생활방식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광릉긴나무좀은 참나무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

참나무시들음병 매개충(광릉긴나무좀)

참나무시들음병 병원체(*Raffaelea quercus*)

이처럼 광릉긴나무좀과 곰팡이, 솔수염하늘소와 재선충이 결합하여 공정하지 못한 그라운드에서의 2대 1의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 소나무와 참나무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숲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소나무와 참나무를 우리곁에 두기 위해서는 인간의 간섭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4. 소나무시들음병(재선충)과 참나무시들음병의 비교

소나무시들음병과 참나무시들음병은 물관을 가해하여 시들음증상 만들고 고사시키는 지독한 병이다. 생태계에서는 종간 관계에 있어 경쟁, 포식, 기생, 공생 등 여러 가지 생활방식이 있지만 이처럼 2종이 한 종을 공격하는 방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구분	소나무시들음병	참나무시들음병
병원체	재선충 *Bursaphelenchus xylophilus*	곰팡이(불완전균류) *Raffaelea quercus*
매개충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광릉긴나무좀
기주	적송,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낙엽송, 가문비나무 등	신갈나무, 갈참나무, 졸참나무
증상	· 잎이 우산살모양으로 처지면서 수세가 약화 · 매개충 탈출공이나 침입공이 있는 고사목 및 수세약화목 · 수피가 쉽게 벗겨지며, 목질부에서 가늘고 긴 목설이 관찰	· 매개충이 침입할 때 생기는 목설 · 피해목의 잎마름 증상 · 피해가 심할 때 나무에서 알코올 냄새가 남 · 내부의 변재부가 암갈색으로 변색
방제	· 천적이용(개미침벌) · 감염목 소각 · 감염목 파쇄 (<1.5cm) · 페니트로티온유제 등 살충제 살포 · 메탐소듐 훈증처리 · 아바멕틴, 에바멕틴 벤조에이드 수간주사	· 끈끈이 트랩설치 · 페르몬 설치 · 유인목 설치 · 메탐소듐 훈증처리

5. 시들음병의 방제방법

1. 소나무시들음병(재선충병)

소나무시들음병의 증상은 침엽이 변색되면서 잎이 아래로 쳐져 우산살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감염 후에는 상처로부터 송진량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나무시들음병에 감염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의 전염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소나무를 1m단위로 잘라 쌓고 비닐로 덮어 안쪽에 메탐소듐 약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목질부내에 있는 재선충과 하늘소를 제거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1.5cm 이하의 두께로 파쇄하여 재선충의 서식공간을 없애는 방법도 있다. 또한 솔수염하늘소의 최대우화기인 6월초순에 페니트로티온 유제와 티아크로프리드 액상수화제를 사용하여 지상살포나 항공방제를 하는 방법으로 전염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치료의 목적이 아니라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이 수간주사이다. 아바멕틴, 에바멕틴 벤조에이드 유제를 수간주사하여 하늘소와 재선충의 침입을 사전에 막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훈증처리

개미침벌

감염목 소각

감염목 파쇄

살충제 살포

수간주사

2. 참나무시들음병

참나무 시들음병의 증상은 광릉긴나무좀이 침입할 때 생기는 목설이 참나무줄기아래에 있거나 피해목이 잎마름증상을 보이고 심할때는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참나무의 줄기의 변재부는 곰팡이균에 의해 암갈색으로 변색된다. 참나무시들음병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이 참나무를 가해가지 못하도록 끈끈이트랩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상에서 2m정도까지 감아주거나 유인목을 이용하여 허약하거나 죽은 나무로 나무좀을 유인하는 방법도 사용이 된다. 또한 나무좀은 페르몬에 잘 유인이 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이용하거나 감염목은 훈증처리하여 전염을 막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직접살포시에는 파라핀, 에탄올, 터펜틴을 혼합하여 줄기에 분사함으로써 광릉긴나무좀을 방제한다

훈증처리

소구역골라배기

끈끈이트랩

유인목설치

페르몬 유인

수간주사

화려하고 풍성한 꽃송이

수국속 일곱 번째 이야기

Genus *Hydrangea*

김종근

글/사진 : 플러스가든 대표 김종근
Homepage : www.plusgarden.com

나무수국

Hydrangea paniculata Siebold

Hydrangea paniculata Siebold
나무수국

잎이 지는 넓은잎 작은키나무로 일본과 러시아 사할린 섬 남부, 중국 동부와 남부가 원산지이며 혼합림이나 탁 트인 언덕에서 저절로 자란다. 키는 보통 2-3m까지 자라지만 크게 자라면 약 6m에 이르기도 있다. 수국, 산수국, 미국수국, 떡갈잎수국류와는 달리 나무처럼 더 크게 자라면서 원뿔모양꽃차례를 이루는 점이 구별된다. 잎은 마주나게 붙거나 3개씩 돌려나며 모양새는 타원 모양으로 잎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톱니가 발달하고 길이는 5-12cm, 폭은 3-8cm 정도 된다. 꽃은 7-9월경 가지 끝에 약 15-20cm 크기의 원뿔모양꽃차례에 하얀색으로 피는데 무성꽃과 양성꽃이 함께 섞여 있으며 꽃받침 조각은 처음에는 하얀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붉은빛을 띠기도 한다. 유성꽃이 핀 자리에는 가을철 삭과의 열매가 익는다. 오래된 줄기의 나무껍질은 보통 회색을 띠며 그해 자란 일년생 가지는 갈색을 띤다. 한해, 두해, 여러해에 걸쳐 늦겨울철마다 묵은 꽃의 관상가치가 떨어질 무렵 꾸준히 일년생 가지의 마디를 한두 마디 정도로 짧게 남긴 채 전정하면 줄기를 꼿꼿하게 나무처럼 유지할 수 있다. 번식은 초봄이나 여름철에 가지를 잘라서 꺾꽂이하면 뿌리가 잘 내린다. 나무수국류도 다른 수국류와 마찬가지로 야외 식재 뿐만 아니라 절화 및 화분용으로 훌륭하다. 다음에 나오는 재배품종들도 원종인 나무수국과 비슷하지만 크기, 꽃차례의 모양, 색깔, 개화시기 등 각각 구별되는 특징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무수국 '버건디 레이스'

Hydrangea paniculata 'Burgundy Lace'

Hydrangea paniculata 'Burgundy Lace'
나무수국 '버건디 레이스'

나무수국 '버건디 레이스'

키는 약 1.8m에 이르는 잎지는 작은키나무로 잎은 달걀 모양이고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톱니가 발달한다. 원뿔모양꽃차례에 달리는 꽃은 7월 하순에 크림빛 흰색으로 피기 시작해서 8월과 9월에 걸쳐 포도주빛(버건디; Burgundy) 붉은색으로 변하는 점이 특징이다. 크고 빠르게 자라며 추위에 강하고 적응력이 강한 품종이다. 특히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선호하지만 악조건에서도 잘 견디는 내성을 가지고 있다. 실내외 모든 공간에 활용하기 좋으며 키가 작은 초본과 키가 큰 목본 군락의 경계지역에 조화롭게 식재하면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1975년 벨기에의 로버트(Robert)와 엘레나 드 벨데르(Jelena de Belder)에 의해 육성되었다.

나무수국 쁘띠 스타 '쿠스타02'

Hydrangea paniculata 'Coustar02'
(PETITE® STAR)

Hydrangea paniculata 'Coustar02'
(PETITE® STAR)
나무수국 쁘띠 스타 '쿠스타02'

키는 50cm, 폭은 90cm 정도로 단정하고 빽빽하게 자라면서 많은 꽃을 피우는 점이 특징이다. 6월말부터 연두빛 노란색으로 피는 꽃은 하얗게 변했다가 8월경 분홍색으로 변하고 8월말이나 9월초가 되면 빨간색으로 변한다. 꽃은 길이와 너비가 각각 15cm 정도로 꽃이 피면 식물 전체를 덮을 정도로 많이 달린다. 추위에도 강해서 영하 25도까지 생육이 가능하고 더운 온도에 견디는 내성도 강하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장식용 화분에 담아 테라스에 전

시해도 좋으며 강한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 공간에 식재하면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이 품종은 유럽 육종가권리(EU20193292)에 등록된 품목이라 라이센스 보유자의 허가 없이는 번식이나 판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아래에 이러한 유형으로 상표명이 붙어 있는 식물은 모두 라인센스 보유자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나무수국 '에베레스트'

Hydrangea paniculata 'Everest'

Hydrangea paniculata 'Everest'
나무수국 '에베레스트'

키는 약 1.5-1.7m까지 자라며 7월경 흰색의 원뿔모양꽃차례가 가지 끝에 피는데 가을철에는 진분홍색으로 변한다. 달걀 모양의 잎 가

나무수국 '에베레스트'

장자리에는 톱니가 발달한다. 원뿔모양꽃차례는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 전년도에 성장한 가지를 5-8cm 정도 남긴채 잘라주면 멋진 수형을 유지해 줄 수 있다. 뾰족뾰족하게 솟은 하얀색의 원뿔모양꽃차례는 마치 눈으로 덮인 에베레스트산을 연상시킬 정도로 매력적이다. 하얀색을 테마로 하는 웨딩가든이나 화이트가든에 식재하면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나무수국 '플로리분다'

Hydrangea paniculata 'Floribunda'

키가 약 3m까지 크게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로 잎 가장자리에는 가는 톱니가 발달한다.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커다란 원뿔모양꽃차례가 발달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홍색을 띠게 된다. 서구에는 1860년대 일본에서 도

Hydrangea paniculata 'Floribunda'
나무수국 '플로리분다'

나무수국 '플로리분다'

입되어 재배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내에는 천리포수목원에 도입되어 큰연못 주변에서 자라고 있다. 수변에 단독으로 심어도 좋으며 군락으로 심거나 생울타리로 이용해도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나무수국 '그란디플로라'

Hydrangea paniculata 'Grandiflora'

Hydrangea paniculata 'Grandiflora'
나무수국 '그란디플로라'

키가 약 3-7.5m, 폭이 2.4-4.5m까지 크게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이다. 7-9월경 길이가 최대 45cm에 달하는 무성꽃으로 이루어진 원뿔모양꽃차례에 풍성하게 피는 꽃이 매력적이다. 꽃차례가 너무 풍성하여 가지가 아래로 휘어질 정도이다. 달걀 모양의 잎은 가장자리에 가는 톱니가 발달하며 가을철에는 노란색으로 단풍이 든다. 이 품종은 다른 수국류에 비해 햇볕에 더 잘 견디지만 오전에는 햇살을, 오후에는 서늘한 그늘을 더 좋아한다. 토양은 중간 정도의 습도 또는 촉촉한 곳을 선호하며 배수가 잘되는 중성 또는 산성토양에서 잘 자란다. 전년도에 생긴 가지가 아닌 당년에 생긴 줄기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늦겨울 무렵 원하는 크기

나무수국 '그란디플로라'

와 모양으로 강하게 전정할 수 있다. 특히 이 품종은 겨울철 추위에 강하고 열, 습도, 염분, 공해에도 내성이 우수하다. 별장, 안뜰 또는 숲속정원에 단독 또는 군락으로 심어도 좋으며 생울타리로 이용해도 좋다. 서구권에는 1860년대 일본에서 도입되어 점차 보급되었다.

수국 '그린스파이어'

Hydrangea paniculata 'Greenspire'

키는 약 2.5m, 너비는 약 2m까지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이다. 약 30cm에 달하는 원뿔모양꽃차례가 여름부터 초가을 사이에 녹색

Hydrangea paniculata 'Greenspire'
나무수국 '그린스파이어'

나무수국 '그린스파이어'

으로 피기 시작하여 하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분홍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성꽃은 녹색을 유지하고 무성꽃은 분홍색으로 변한다. 오전에 햇볕이 들고 오후에는 그늘지는 광조건이 좋으며 반그늘 내지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일단 뿌리가 땅에 자리잡으면 추위나 서리에 강하다. 단독으로 심어도 좋으며 군락 또는 생울타리로 이용해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나무수국 '큐슈'

Hydrangea paniculata 'Kyushu'

Hydrangea paniculata 'Kyushu'
나무수국 '큐슈'

키와 너비가 각각 1.2-1.8m까지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로 많이 크면 키가 약 2.5m까지 자라기도 한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약 20cm까지 자라는 원뿔모양꽃차례는 다른 나무수국류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빽빽하게 많이 달리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 품종은 키가 크지 않고 곧게 자라기 때문에 작은 정원에 아주 적합하며 양지바른 곳과 약간 그늘진 곳에서 잘 자란다. 서구에는 영국 너서리맨인 콜링우드 잉그램(Collingwood Ingram)에 의해 일본 큐슈에서 들여왔다.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PBR

Hydrangea paniculata 'Limelight'PBR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나무수국 '라임라이트'

키와 너비가 각각 2.5m까지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로 자란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연녹색꽃이 풍성하게 원뿔모양꽃차례로 피었다가 가을에는 진한 분홍색으로 변한다. 꽃이 풍성하기 때문에 절화용이나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해도 좋으며 실내 화분 또는 다소 그늘진 숲 하부층에 군락으로 식재하거나 생울타리로 식재해도 훌륭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수형을 단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지치기는 매년 봄에 전체 높이의 약 1/3 정도로 줄이면 된다. 오전에 햇볕이 들고 오후에는 그늘지는 광조건이 좋으며 반그늘 내지 그늘에서도 잘 자란다. 다소 습기가 있으면서 배수가 잘되는 곳에서 잘 자란다.

나무수국 쁘띠 랜턴 '리스주디'

Hydrangea paniculata 'Lissjudy'
(PETITE® LANTERN)

Hydrangea paniculata 'Lissjudy'
(PETITE ®LANTERN)
나무수국 쁘띠 랜턴 '리스주디'

키가 작은 난쟁이성 수국으로 영국의 리스 포레스트 너서리(Liss Forest Nursery Limited)에서 육성하여 2019년 유럽에 식물특허를 출원하였다. 키가 80cm, 폭이 약 40cm까지 자라며 7월부터 10월까지 루비빛 빨간색의 줄기 끝에 원뿔모양의 꽃이 피어난다. 무성꽃과 유성꽃이 함께 피는데 처음에는 크림빛 흰색으로 피었다가 분홍색으로 변했다가 초가을 무렵 짙은 진홍색으로 변한다. 줄기가 튼튼하게 곧추서기 때문에 특별한 지주 설치를 하지 않아도 단정한 수형을 유지할 수 있다. 키가 작기 때문에 작은 정원이나 발코니, 테라스의 화분에 심어 키워도 멋진 연출

이 가능하다. 매년 봄 새싹이 돋기 시작하기 전인 3월경에 정기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주면 튼튼한 가지와 큰 꽃을 피울수 있다. 이 품종의 경우 전년도에 성장한 길이의 최대 90%를 잘라주는 것이 좋다. 거의 대부분의 토양 유형에서 잘 자라며 부식질이 풍부하면서 촉촉한 곳에서 더 잘 자란다. 건조에도 강하기 때문에 뿌리가 자리를 잡으면 물을 주지 않아도 잘 견딘다. 햇볕이 잘 드는 곳이 좋지만 약간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란다. 꽃의 크기를 키우려면 정기적으로 충분한 비료나 거름을 주는 것이 좋다. 추위에는 매우 강해서 –34℃까지 생육이 가능하다.

나무수국 핀키 윈키

Hydrangea paniculata Pinky Winky ('Dvppinky'[PBR])

Hydrangea paniculata Pinky Winky ('Dvppinky'[PBR])
나무수국 핀키 윈키

7월에서 9월 사이에 약 40cm 크기의 원뿔모양꽃차례에 피는 꽃은 처음에는 흰색이다가 점차 분홍색으로 변해서 투톤 색상의 효과가 연출된다. 꽃줄기는 튼튼하여 곧추서며 매년 늦겨울철에 가지를 잘 정리해 주면 원하는 모양으로 단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단독 또는 군락으로 심어도 좋으며 모아 심어 꽃울타리를 만들어도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양지바른 곳에서 잘 자라지만 반그늘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 토양은 촉촉하면서 배수가 잘되고 부식질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란다. 빨갛게 피는 풍성한 꽃차례가 매력적이어서 절화용이나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노출된 곳에 심어 강렬한 색상을 감상해도 좋다.

나무수국 '프라이콕스'

Hydrangea paniculata 'Praecox'

키는 약 4m, 폭은 약 2.5m까지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이다. 잎은 달걀 모양으로 광택이 나는 녹색을 띤다. 꽃은 초여름부터 크림빛 흰색 꽃이 원뿔모양꽃차례에 핀다. 최초 미국 하버드대학교 부속 수목원인 아놀드수목원에서 사전트(Sargent)가 수집한 나무수국(*H. paniculata*)의 씨앗에서 재배된 개체 중 하나가 다른 개체들 보다 훨씬 일찍 꽃이 피는 것을 발견하여 1897년 9월에 수목원의 간행물인 정원과 숲(Garden and Forest)에서 소개했고, 몇년 후 수목원 분류학자 알프레드 레더(Alfred Rehder)에 의해 이 식물은 'Praecox'('조기'를 의미)로 명명되었다. 이 품종은 생육이 왕성하고 빠르게 자라며 기본종(*H. paniculata*)보다 약 3-6주 정도 일찍 꽃을 피운다. 최초 육성한 아놀드수목원에서는 보통 7월 초-중순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Hydrangea paniculata 'Praecox'
나무수국 '프라이콕스'

나무수국 '프라이콕스'

나무수국 퀵 파이어 팹

Hydrangea paniculata Quick Fire Fab®

키는 약 1.8-2.5m, 폭은 약 1.5-1.8m까지 자란다. 초여름 아이스크림콘을 닮은 원뿔모양꽃

Hydrangea paniculata Quick Fire Fab®
나무수국 퀵 파이어 팹

차례에 피는 작은 꽃은 크림빛 흰색에서 분홍색, 빨간색으로 변한다. 특히 꽃이 가장 먼저 피는 품종 중 하나이며 오랫동안 꽃이 피어 가을철에도 붉은색 꽃의 관상가치가 높으며 줄기가 꼿꼿하게 서는 점도 매력포인트 중 하나이다. 낮은 생울타리나 볕이 잘드는 창문가 화분용으로도 좋으며 약간 그늘지면서 습도가 높은 숲속정원에 심어도 멋진 연출을 할 수 있다. 늦겨울이나 초봄에 가지를 1/3 정도 줄여 가지치기를 하면 된다. 비료는 땅이 녹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알비료 등 고형비료를 주면 더욱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나무수국 '타르디바'
Hydrangea paniculata 'Tardiva'

키는 약 2.4-3.6m, 폭은 약 2.1-3.0m까지 왕성하게 직립하면서 빠르게 자란다. 꽃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흰색으로 피었다가 점차 자줏빛 분홍색으로 변하며 약 20cm 정도 크기의 원뿔모양꽃차례에 달린다. 잎은 타원 또는 달걀 모양으로 약 15cm까지 자라는데 가장자리는 가는 톱니가 발달하며 가을철에는 노란색에서 보라색으로 단풍이 든다. 유기물이 풍부하고 중간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며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부분적으로 그늘진 곳에서 가장 잘 자란다. 하나의 줄기로 키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줄기가 여러개 뻗어 나오는 수형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난하다. 늦겨울이나 이른 봄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주요 가지 5-10개 정도로 전정해주면 꽃이 좀 더 풍성하게 개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추위에 강해서 영하 40도까지 자랄 수 있으며 공해에도 강해서 도심지에 심어도 잘 생육한다.

Hydrangea paniculata 'Tardiva'
나무수국 '타르디바'

나무수국 '바닐라 딸기'
Hydrangea paniculata 'Vanille Fraise'

키는 약 1.8-2.4m, 폭은 약 1.2-1.5m까지 가지가 직립하면서 둥근 모양으로 자란다. 꽃은 7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10월까지 지속되는데 길이 20-25cm의 커다란 원뿔모양꽃차례를 형성하며 처음에는 크림빛 흰색으로 피던 꽃이 딸기색을 띤 분홍색으로 변했다가 점차 분홍빛 진붉은색을 약 3-4주 정도 유지하다가

Hydrangea paniculata 'Vanille Fraise'
나무수국 '바닐라 딸기'

겨울철 갈색으로 변한다. 양지바른 곳에서도 잘 자라며 수국(*H. macrophylla*)보다 여름 가뭄과 석회암 토양에 훨씬 더 잘 견딘다. 부식질이 풍부하면서 습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단독으로 심어도 좋으며 도심지 정원, 컨테이너 가든이나 작은 프라이버시 생울타리를 만드는 데 식재해도 좋다. 모양을 다듬기 위해 늦겨울이나 초봄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으며 초여름에는 녹지삽, 겨울철에는 숙지삽으로 번식할 수 있다.

나무수국 '화이트 모스'
Hydrangea paniculata 'White Moth'

키는 약 1.8-2.1m, 폭은 약 2.1-2.4m까지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로 꽃은 7월부터 9월까지 핀다. 길이와 너비가 약 36cm에 달하는 원뿔모양의 꽃차례는 하얀색으로 풍성하게 핀

Hydrangea paniculata 'White Moth'
나무수국 '화이트 모스'

나무수국 '화이트 모스'

다. 꽃은 새로 나온 가지에 피며 꽃이 피는 동안 계속 흰색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단독으로 심어도 좋으며 작은 프라이버시를 위한 생울타리를 만드는 데 식재해도 좋다. 특히 하얀색의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어서 화이트를 테마로 하는 웨딩가든이나 화이트가든과 같은 공간에 식재하면 멋진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유기질이 풍부하면서 중간 정도의 습도를 함유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란다. 또한 햇볕이 잘 드는 곳이나 약간 그늘진 곳에 심으면 잘 자란다.

나무수국 화이트라이트

Hydrangea paniculata Whitelight
('Hylv02[PBR])

Hydrangea paniculata Whitelight
('Hylv02[PBR])
나무수국 화이트라이트

키가 약 1m까지 작고 단정하게 자라는 잎지는 작은키나무이다. 잎은 좁은 타원 모양으로 짙은 녹색을 띠며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톱니가 발달한다. 한여름에서 늦은 여름에 작은 꽃

나무수국 화이트라이트

들이 촘촘하게 원뿔 모양으로 모여 핀다. 꽃은 처음에는 연녹색을 띠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밝은 흰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변한다. 단정하게 자라기 때문에 테라스 공간의 컨테이너 화분에 심어도 좋으며 꽃을 잘라 화병에 꽂아두거나 거꾸로 매달아 건조 시킨 후 드라이플라워로 이용해도 실내공간을 멋지게 꾸밀 수 있다.

참고문헌

국가표준식물목록 http://www.nature.go.kr/kpni
송기훈, 권용진, 김종근, 원창오, 이정관(2018) 한국정원식물A-Z. 디자인포스트
플러스가든 http://www.plusgarden.com
Alan Toogood(1999) RHS Propagating Plants. DK.
Glyn Church(1999) Hydrangeas. David Bateman.
Michael A. Dirr.(1997) Dirr's Hardy Trees and Shrubs. Timber Press.
RHS Plant Finder https://www.rhs.org.uk/plants
Hillier(1995) The Hillier Gardener's Guide to Trees & Shrubs. David & Charles.
Liberty Hyde Bailey(1976) Hortus Third – A Concise Dictionary of Plants Cultivated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Macmillan.
Missouri Botanical Garden http://www.missouribotanicalgarden.org
RHS(1996) A–Z Encyclopedia of Garden Plants. DK.
The Royal Horticultural Society(1999) The New Royal Horticultural Society Dictionary of Gardening. Macmillan.

조경수 기고

하회마을 삼신당 느티나무

이용직

自號 빈수레

시인, 소설가. 2011년 《산림문학山林文學》신인상 소설 • 2011년 《창조문예》신인상 시 등단
장편소설 「편백 숲에 부는 바람」(2012년), 「그 숲에 살다」(2014), 「억새바람의 전설」(2017),
시집 「물소리 바람소리」(2011), 수필집 「산, 그리고 인간과의 만남」, 「솔숲은 그 자리에」(2012)
동화집 「산불소방관」(2003), 「숲짱 할아버지와 지작나무 친구들」(2019),
수상 2014년 제3회 녹색문학상,
2019년 한국출판문화진흥원 주관 우수출판콘텐츠제작지원사업 당선작 선정.

하회마을은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에 있다. 마을 지형이 마치 산과 물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형국으로 우리말로는 '물돌이동'이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은 풍산 류씨의 집성촌이고 마을 전체가 민속자료(1984년 제122호)로 지정되었고, 2010년에는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하회마을에는 국보 1점 「징비록」, 보물 4점, 중요무형문화재인 「하회별신굿탈놀이」와 「선유줄불놀이」가 있다. 하회마을은 고려 말엽 전서공 류종혜 공이 터를 놓은 이래 600여 동안 충효 가문의 영예를 지켜오고 있는 명문이다. 풍산 류씨 가문의 중흥을 불러오게 된 계기는, 씨족의 중흥조라 할 수 있는 겸암 류운룡과 서애 류성룡 형제 때부터이다. 류성룡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이다. 본관은 풍산이고 시호는 문충공이며 서애는 호이다. 류성룡은 관찰사 류중영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안동김씨 집성촌인 의성 사촌마을이 류성룡의 외가이다.

일찍이 류성룡을 가르친 퇴계는 "이 아이는 하늘이 낳은 인재이니 뒷날에 반드시 대유 大儒가 되리라."라고 칭찬했다 한다. 이에 류성룡과 동문수학하던 학봉 김성일은,
"내가 선생을 모신지 오래지만 한마디 장허奬許(칭찬)의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선생께서 '하늘이 낳은바'라 하셨으니, 공은 대체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서애 西厓는 나의 사표師表다."

라고 했다는 데서 류성룡의 천재성을 짐작케 한다. 이처럼 신동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던 류 성룡은 명종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대소 관직을 두루 섭렵하게 된다. 28세에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갔을 때는 선생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한 명나라 학자들이 서애 선생이라 부를 정도로 그 학문의 깊이가 있었다. 우리 민족사의 참극을 불러온 임진왜란! 조선조 제14대 임금인 선조 때 왜란이 발발하자 서애는 영의정 신분으로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신립 장군의 패전 소식에 겁을 먹은 선조 임금이 명나라에 내부內附 하자는 망령된 분부에

"어가가 나라 밖으로 한 치만 나가면 조선은 없습니다." 라고 만류하여 나라를 지켜냈고,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나라의 안보를 튼튼히 하였다. 그 전쟁에서 겪은 뼈저린 교훈을 후세에게 남기고자 쓴 징비록이 국보 제132호로 전해지고 있다. 임진왜란을 당해서는 불세출의 명장 이순신을 발탁하여 나라를 구했으며 청렴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 조선의 명재상으로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하회마을의 명당자리에는 전서공 류종혜가 심었다는 수령 600년짜리 느티나무가 자리하고 있다. 무수하게 자란 가지와 반 천년을 훌쩍 넘긴 버거운 몸집을 추스르며 살아가는 이 나무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한다. 특히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삼신당 느티나무 앞에서 춤판을 벌였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노거수에 경외심을 갖는 것은, 나무가 살아온 세월의 역사성과 인간이 미치지 못하는 생명력에 감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신당 느티나무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종묘사직을 보전한 서애의 자취를 간직하고 있는 신령스러움 때문에 더욱 경외감을 갖게 된다. 작업에 앞서 간단한 주과포 酒果脯를 차려놓고 고유의례 告由儀禮를 치렀다. 미신이라 할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을 지켜주고 있는 노거수에 대한 예우라고도 할 수 있고, 무사고를 비는 작업자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어른들을 초대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 치르는 의례이기도 하다.

삼신당 느티나무는 관람객들의 발걸음으로 땅이 굳어져 뿌리의 생장을 방해하고 있었고,

수간에는 부패균이 번지고 있었으며, 땅 위로 낮게 드리워진 가지는 비바람에 부러질 우려가 있었다. 한편, 뿌리의 세력에 비해 과도하게 무성한 수관부에는 죽은 가지가 방치되고 있었다.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부위를 제거하고, 방수, 방부, 방충 약품을 처리한 다음 외과적인 처리를 하였으며, 토양을 굴기하고 상토를 처리하여 토양의 구조 개선과 지력 증진을 도모하였다. 나무의 높은 곳까지 올라가 죽은 가지와 쇠약한 가지를 제거하고 무성한 엽량을 조절하여 뿌리와의 세력 균형을 유지 시켰고, 낮게 드리워진 가지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였다. 이 느티나무가 노거수임에도 비교적 좋은 생장을 보이는 것은, 평소에 노거수의 생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나무를 훼손시키지 않고 병해충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생장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만송정 숲은, 하회마을에서 건너다보이는 화천花川 변에 위치한 소나무 군락으로, 2006년 11월 27일 자로 천연기념물 473호로 지정되었다. 이 소나무 숲은 인동 현감을 지낸 문경공 류 운룡이 마을의 풍광을 완상하고자 400년 전에 조성한 숲이다. 소나무 1만 그루를 심었다 해서 만송정 솔숲이라 했으나 그때 심은 소나무는 오래전에 소멸되었고, 현재의 숲은 100여 년 전에 새롭게 조성한 것이라고 문화재청이 밝히고 있다. 이 소나무 숲은 하회마을을 휘돌아 나가는 화천 花川이

만들어낸 모래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수령 100년 내외의 노송이 적당한 거리 간격을 유지하며 생장하고 있다.

비교적 넓은 자리를 차지한 소나무들은 복토가 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송진을 채취한 피해도 없이 건강하게 생장하고 있다. 토양의 답압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정하고 안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한시적일 뿐, 장기적으로는 사람이 이동하는 통로를 개발하고 목제 데크를 설치하여 토양이 답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일단 감염되면 치료 방법이 없는 무서운 병이다. 방제 약제를 수관에 살포하거나 줄기에 구멍을 뚫고 약제를 주입하기도 하며, 토양에 약품을 처리하여 뿌리가 흡수토록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소나무 숲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어 토양에 처리하기로 했다. 방제 약제인 포스치아제이트 30%(일명 선충탄)액제를 100배로 희석하여 뿌리가 분포하고 있는 토양에 중점적으로 관주하였고, 소나무를 중심으로 1m 내외의 타원형으로 구거를 만들고 약제를 주입하여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삼신당 나무 할매

긴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눈멀고 귀먹어도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세월이었습니다
하찮은 좀벌레가 오장을 갉아 먹어도
모진 비바람에 팔다리가 부러져도
묵묵히 참아내는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발밑은 온통 뜨거운 자갈밭이 지글대고
식솔들은 배고프다 졸라대건만
거름 한 줌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날개를 펼쳐 큰 꿈을 키우고
땅으론 가지를 펼쳐 만인의 그늘이 되라고
알토란 같은 내 새끼들
금관자 옥관자로 키웠건만
부질없는 세월이었습니다
어떤 미치광이가 팔뚝을 잘라가도
주정뱅이 취객이 오물을 토해도
수심 깊은 절손 며느리가 아기를 빌러 와도
야속한 세월은 모른 채 했습니다

내 눈은 시간을 바라보는 천리안이요
내 몸뚱이는 천년 세월을
지켜선 우복동*牛腹洞이라오

그리하여
나는 천수를 더하여 만수를 하렵니다
천지간에 민족통일의 천아성 *天鵝聲이
울리는 그날을 온몸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태극의 물결이 넘실대는
그날이 오기를
두 눈 부릅뜨고 기다리겠습니다

* 牛腹洞 :병화가 미치지 못한다는 상상 속의 이상향
* 天鵝聲 :임금 행차에 부는 태평소. 나라에 경사가 있다는 뜻

안면도 소나무, 일제에 의해 수난을 당하다

시인 · 역사칼럼니스트 **신현배**

안면도는 조선 시대에 황장봉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곳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는데, 질 좋은 소나무들이 많아 조선 중종 때는 정부에서 직접 관리했다. 안면도는 소금과 철의 생산지로 유명하다. 이 일에는 땔감이 많이 필요한데,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안면도 소나무는 궁궐을 짓거나 왕실의 관을 짜는 목재, 배를 만드는 재료로 널리 이용되었다. 18세기 수원 화성 건설이나 19세기 창덕궁 인정전 수리 공사 등 조선 왕실에서 궁궐을 짓거나 고칠 때는 이곳의 소나무를 많이 가져다 썼다.
이렇듯 조선 왕실의 각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던 안면도 소나무가 일제 강점기에 큰 수난을 당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제2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군은 군용 항공기 연료로 쓰려고 이곳 아름드리 소나무에서 송진을 강제로 채취하게 했다고 한다.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이 길어지면서 전쟁 물자가 부족했다. 특히 미국의 석유 수출 금지로 석유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석유 대신 사용하려고 소나무에게서 송진을 채취한 것이다. 송진에서는 항공기 연료로 쓸 수 있는 송탄유가 나오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안면도의 소나무에게서 송진을 채취하는 일을 일본 회사인 아소상점에 맡겼다. 아소상점은 안면도의 소나무 숲을 사서 송진 채취와 소나무 벌목에 나섰다. 이 일에 동원된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는 하루 일당으로 50전을 주었다. 50전은 사흘을 쓰지 않고 모아야 쌀 한 말 살 수 있는 적은 돈이었다.

소나무에게서 송진을 채취하는 방법은 잔인하고 끔찍했다. 소나무에 칼로 'V'자형의 흠집을 낸 뒤 깡통을 달아 두면 송진이 저절로 모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나무에게는 넓은 'V'자 모양의 칼자국이 남게 된다. 아소상점은 하루 200그루의 소나무에게서 송진을 채취하면, 그 나무들을 베어 항구로 보냈다. 인천항이나 군산항에서 배에 실어 일본으로 수송한 것이다. 일본군이 아소상점을 통해 그렇게 처리한 소나무가 10여만 그루나 된다고 한다.

일제에 의해 수난을 당한 소나무는 안면도 소나무뿐만이 아니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소나무들이 칼로 속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다. 그리하여 칼질을 당한 소나무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일제는 송진 채취를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다. 도 단위로 군 단위로 면 단위로 배당량을 강제로 떠맡겼다.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수집량을 정해 보통학교 1학년은 한 사람당 1관, 6학년은 3관, 사범학교 졸업반은 7관씩을 떠맡겼다. 학교 수업은 모두 중단한 채 송진을 채취하는 일에 학생들을 내몰았다.

학생들은 소나무 숲을 온종일 헤매며 배당량을 채워야 했다. 처음엔 일주일, 그 다음엔 5일, 3일로 단축된 날짜에 맞춰 배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거나 사상범으로 몰려 벌을 받기도 했다.

송진은 소나무에서 나온 기름이다. 맑은 기운이 떨어지듯 생긴 것이라 해서 '역청'이라고도 한다.
중국 문헌인『포박자』에는 종기가 심해 산속에 버려진 조구라는 사람이 송진을 먹고 살아나 신선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실제로『본초강목』등 여러 의학책에는 송진을 먹으면 배고픈 줄 모르고, 일 년 이상 되면 밤눈이 밝아진다고 적혀 있다.

송진은 악성 종기와 부스럼 등에 특효약이라고 한다. 흉기에 찔려난 상처나 돼지 등의 짐승에게 물렸을 때에도 약효가 있고, 불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나병)도 고칠 수 있다고 전해진다.

노거수 산책(5)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

천연기념물 제299호

박정기
(사)한국조경수협회 이사
곰솔조경 대표

남해 창선도 왕후박나무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추정 수령 500년에 키 10m, 가지펼침 폭 22m, 가슴높이 둘레는 1.2~2.7m로 다양한 굵기다. 근맹아(根萌芽) 후계목이 여러 대를 이어 거대한 수체(樹體)를 이루는데, 11개 줄기의 굴곡진 밑동 둘레는 무려 11m나 된다. 왕후박나무는 후박나무에 비해 잎이 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후박나무는 녹나무과(科) 한반도 난대기후대 깃대종으로 성장이 빠르고 크고 우람하게 자라며 가지 펼침이 좋아 상록활엽수로는 드물게 정자나무가 된다. 또 노거수로 자라도 수피(樹皮)는 갈라지거나 탈락하지 않고 피목(皮目) 도드라지며, 새봄에 붉은 잎이 되는 토실토실 쫑긋쫑긋 동아(冬芽)도 볼거리다.

남해 앞바다 섬 하나가 통째로 육지에 올라온 것 같은 창선도 왕후박나무는 옛날 한 어부가 잡은 큰 고기의 배를 가르니 이상한 씨앗이 들어 있어 뒤뜰에 심은 것이 자랐다고 한다. 또 임진왜란 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이 이 나무 아래서 쉬고 전열을 가다듬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 온다. 창선리 단항마을 당목(堂木)이기도한 왕후박나무는 마을사람들이 섣달 그믐날 풍농 · 풍어를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지낸다.

*** 찾아가는 길 :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669-3**

후박나무는 '정이 두텁고 거짓 없이 소탈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크고 아름답게 자라 상록활엽수 중에서 보호수로 지정된 개체가 상대적으로 많다.

전남 장흥군 관산읍 삼산리 후박나무(천연기념물 제481호)

경남 통영시 서호동 벼락당 후박나무(통영시보호수) / 경남 거제시 일운면 공고지 후박나무와 일출

신규회원사 (2024.1-3)

지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광주 전남서부	황룡조경수	이형선	010-3018-2229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273번길 76, 주공아파트 102동 1806호
강원	에코랜드	이진철	033-742-2789 010-5379-2789	강원도 원주시 양지로 80, 104호
경남중부	금평조경농원	김기동	010-5271-1344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비봉길 98-5
고성	문화농원	류주열	043-533-3744 010-3066-8310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행정2길 34-5
경기	좌구산 수목농원	이우희	031-384-0689 010-2003-179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146, 한가람삼성아파트 203동 1503호
경기	기산조경	김승진	031-536-3369 010-5353-6958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1410

회원사변경 (2024.1-3)

업체명	대표자	변경종류	변경후
나무와숲	김중원	주소변경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로 16, 상록경남아너스빌아파트 110동 1302호
㈜녹지원	강정수	주소변경	경상북도 경산시 임당로 129, 2층
㈜영재조경	최봉순	주소변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27(동강프라자) 306호
한솔기업㈜	박귀비	주소변경	울산광역시 남구 팔등로 61번길 23-1 2층
아남농원	안신	주소변경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아남1길 108-17
오수농원	김재원	상호, 주소변경	상호:재원농장→오수농원,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889-1
대순조경	노병은	주소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삼정로20 모아미래도 102동 1101호
㈜유원조경	신언종	상호추가, 주소변경	상호:㈜유원조경,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운길 18-11
최신농원	신희순	상호추가	최신농원
㈜들꽃세상 조경산업	양화숙	주소변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진로 30-12
지포레㈜	오정진	상호변경	농업회사법인(유)현산→지포레㈜
삼남종합조경㈜	유형근	우편번호변경	61132
엔에스건설조경	이정환	상호,일반전화,핸드폰변경	상호:삼우→엔에스건설조경, 일반전화:062-651-3309, 핸드폰:010-9236-3579
일림조경	이진근	상호추가	일림조경
제이에이치조경 주식회사	장학수	주소변경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49번길 55, 105호(동림동, 유일가든상가)
그린농원	전점안	상호,일반전화추가, 주소변경	상호:그린농원, 일반전화:061-322-3676,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신송길 271-2
남광건설㈜	한두희	핸드폰변경	010-3641-2299
(주)용림조경	이병관	상호변경	용림조경 → ㈜용림조경
뜰안의행복	김조훈	상호추가	뜰안의행복
농업회사법인 조경마루㈜	황수영	상호변경, 일반전화추가	상호:한국식물특허,조경마루→농업회사법인 조경마루㈜, 일반전화:070-8802-3058
세종식물원 농업회사법인㈜	신중우	상호변경	농업회사법인 세종식물원 주식회사→ 세종식물원 농업회사법인 ㈜
영원환경조경	손억창	팩스,주소변경	팩스:0508-933-124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288 (금토동 14)
솔바위농업회사 법인(주)	박성진	상호변경	솔바위농원→솔바위농업회사법인(주)
㈜서림원예종묘	송병수	주소추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397(신원동)
늘봄조경공사	이영찬	주소변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로 9번길 59 801동 203호(고색동)(16602)
㈜서연조경이엔씨	홍승훈	상호변경	㈜서연조경→㈜서연조경이엔씨
산태골숲속마을	이수익	주소변경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1317 이현하이클래스웰가아파트 103동 1201호
남도농원	김양수	주소변경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707번길 23
㈜지석조경건설	박영원	주소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문정대명벨리온 1005호
흙과나무사랑농원	이상철	주소변경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도전1길 191
신평농원	김병훈	주소변경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남하제방길 270-7
테라식물원	장휴태	주소변경	전라남도 순천시 용당삼산로 63, 106동 601호
㈜삼지조경산업	지문철	주소변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255번길 13
㈜우리조경	박상건	상호변경	㈜우리엔지니어링→㈜우리조경
솔찬한동천목농원	김용찬	상호추가	솔찬한동천목농원
두리조경	한희	상호,핸드폰변경	상호:한백조경→두리조경, 핸드폰:010-9253-4374
㈜참솔	최홍종	일반전화추가, 주소변경	일반전화:041-631-8588,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159번길 12-12
엔에스조경㈜	김선재	주소변경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학교길 101
미래조경㈜	최종호	대표자변경	이주미→최종호
주식회사 삼명조경	정현승	주소변경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697
주식회사 주안	정해정	상호,대표자, 핸드폰변경	상호:㈜주안조경→주식회사 주안, 대표자:김보경→정해정, 핸드폰:010-9271-0207
㈜청림조경	최성락	주소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184번길 33
	임동래	주소변경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안로870, 기산아파트 102동 805호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이 납부해 주시는 회비를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액**

※ 지회비는 각 지회로 별도 문의 요망

회비납부액			
회장	13,000,000원	부회장	2,600,000원
감사, 지회장, 이사	650,000원	일반회원	본회 150,000원 (지회비 별도)

- **회비납부율(3.10일 현재)** : 임원 26%, 일반회원 : 12.82%

- **회비 납부 계좌**

지회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중앙회 (*임원 회비입금처)	농협	031-01-362481	한국조경수협회
서울	우리	1006-401-561764	양경복(사)한국조경수협회 서울지회
경기	농협	351-1305-5153-03	김재용
강원	농협	351-0802-3423-13	김진걸
충북	농협	352-2078-8185-83	조경수협회 충북지부 이상국
대전·세종·충남동부	농협	352-2174-5076-93	최성락
충남서부	농협	352-1240-2624-53	안신
전북동부	농협	352-1710-6368-53	송인자(사)한국조경수협회
전북서부	농협	351-1266-1784-43	권일병
전남동부	농협	356-1573-9347-53	송종일
광주·전남서부	산림조합	601-11-0003074	한국조경수협회 광주전남서부지회
대구·경북	농협	317-0026-7142-91	한국조경수협회 대구경북지회
경남중부	농협	356-1357-3775-13	경남중부지회
경남서부	국민	580902-01-512734	이제현
울산	경남	221-0107-4898-01	장창권
부산	부산	112-2157-0993-03	박미애
제주	농협	979-12-275401	김승철

코코피트, 피트모스 전문업체

(주)킴스트레이드

뿌리 발육과 작물 생육이
탁월한 원재료만 사용

원재료는 해외 현지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재료 채취부터 완성까지 모든 공정을
깐깐하게 검수 한 후 수입·공급합니다.

조경수 전용 상토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를 사용
- 입자가 굵고 분진이 적은 피트모스를 원료로 사용
- 입자가 굵고 단단한 펄라이트를 원료로 사용
- 우수한 통기성과 배수성을 오래 유지함
- 균일한 성분 조성과 배합으로 빠르고 안전한 포트 재배에 적합

오픈탑 30cm

복원우수 | 적재편리 | 친환경적

코코피트 오픈탑

- UV 처리된 포장으로 별도의 포트(컨테이너)가 필요없음
- 약 5배로 압축된 건조상태의 블록형 제품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25cm 이하 규격)
- 염류가 제거된 고품질 코코칩 함유(30cm 이상 규격)
- 공급 규격 : 15cm, 20cm, 25cm, 30cm

직경 70mm 부직포

직경 100mm 무포장

코코피트 펠렛

- 포트 없이 양묘 재배 가능
- 이식할 때 상토가 뿌리에서 분리되지 않아 편리
- 일부제품 디자인 특허 보유
- 뿌리 발육이 우수하고 분진이 제거된 코코피트 100%제품
- 공급 규격 : 직경 40mm, 50mm, 70mm, 100mm

KIM'S TRADE COMPANY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8, 효성인텔리안 618호 (아현동) **www.kimstrade.com**
TEL. 02-338-9962 | **H.P** 010-5495-9962 | **E-mail.** kimstrade@kimstrade.com

MAIN Biz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 등록번호 : 100102-04781